Weekly 공감

NO.213
Korea.kr/gonggam
2013.06.17


기획특집

# ‘손톱 밑 가시’ 뽑아 내니 새 기회 ‘성큼’

워킹맘 아이 걱정 ‘뚝’…직장어린이집이 돌봐줍니다

종가음식, 고택 · 종택과 연계해 관광상품 만든다

# 요즘 정말이지 일할 맛 납니다

**이상돈**
인성다이아몬드 대표

*전봇대라는 '가시'가 반나절 만에 쑥 뽑혔습니다.
요즘처럼 정부가 중소기업에 관심을 보여준 것은 처음입니다.
주말도 휴가도 없이 개미처럼 일만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는 반드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시 하나가 뽑힐 때마다 몇 배씩 기운이 날 겁니다.
중소기업이 일어서면 국가경쟁력도 함께 솟아오를 겁니다.*

인천에서 다이아몬드 공구를 만드는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이지만 일본 등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오는 산업역군이라 자부합니다.

15년 전 지금의 공장을 사면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장 문 옆에 바짝 붙은 전봇대 때문입니다. 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늘 전봇대에 걸려 긁히고 자동차들끼리 접촉 사고도 잦았습니다. 대형 트럭이 전봇대를 건드리면 뒷집에 전기가 나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나 뒷집에 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붙여봤지만 허사였습니다.

5년 전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전봇대를 뽑아줄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전봇대는 정부 재산이어서 개인을 위해 뽑아줄수 없다. 정 뽑고 싶으면 철거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체념하고 지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손톱 밑 가시 뽑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시처럼 공장 앞 전봇대도 뽑을 수 있을까 싶어 자필로 사연을 써 중소기업청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정부에서 간담회를 하니 오라고 하더군요. 갔더니 저보다 훨씬 억울한 사연을 가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더군요. 전봇대 하나 뽑는 건 '손톱 밑 가시' 축에도 못 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한전에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그러고는 반나절 만에 전봇대를 쑥 뽑아갔습니다. 5년 동안 안 된다던 일이 반나절 만에 이뤄진 겁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고마운 혜택을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일할 맛이 납니다. 전봇대 하나 뽑은 걸 넘어 중소기업인들에게 국민과 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특허 많이 내고 수출 더 많이 해서 달러, 엔 많이 벌어 오고 일하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전봇대 뽑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시'는 덜 뽑혔습니다. 간담회에서 만났던 훨씬 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중소기업인들 이야기입니다. 주말도 휴가도 없이 개미처럼 일만 하는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은 자신들의 사연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저도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의 '손톱 밑 가시'는 반드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시 하나가 뽑힐 때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은 몇 배씩 기운을 낼 겁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일어서면 국가경쟁력도 하늘로 솟아오르겠지요.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06

10

40

52

56

기획특집

# 빗속의 우산 같은 '손톱 밑 가시' 뽑기



**표지 이야기**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비타는 미국과 중국 등 26개국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이길순 대표가 만든 제품이 미국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데는 중소기업청 시장개척단 도움이 컸다. 사진 · 최병준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6.1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1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위클리 공감〉 이 기사!

### 창조경제, 국민 기대만큼 실현되길

212호의 '창의 · 혁신→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생태계 만든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들을 정리해보면 이 기사의 내용처럼 최종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는 일이어서 창조경제 타이틀의 기사를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국민행복 시대를 펼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희(회사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인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은 의외로 영어나 수학에서 한 문제 틀리면 고민하고 성적을 비관하는 데 반해 국어 문제 서너 개 틀린 것은 당연시 여기는 게 고질적인 현실입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며 한글을 창제한 취지와 소중함을 알리는 정책이 항상 일선교육서 묻어나길 바랍니다. 잘못된 우리말 습관을 바로잡아 학생 스스로도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명품 행정도 부탁 드립니다.

배봉조(회사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지난호를 읽고

### 전쟁영웅의 이야기, 가슴 숙연해져…

'전쟁영웅 3人이 들려주는 나와 6 · 25'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지난 현충일 현충원에서 노병이 된 보훈용사의 모습이 이분들의 이야기와 겹치니 가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네요. 요즈음의 젊은 세대들은 6 · 25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안보의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의미와 교훈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창규(회사원 · 대전 중구 동서대로)

### 사회 지도층 탈세 개선되어야

〈위클리 공감〉 212호에 실린 '영조의 균역법'을 읽으면서, 탈세와 불법외환거래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국내 부유층 인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선 중기에 양반 계층이 세습화되면서 군역과 납세를 회피하였고, 결국 각종 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이 〈위클리 공감〉을 읽고, 나라가 없으면 자신들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회사원 · 서울 강남구 논현2동)

### 전력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예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데 특히 올해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나부터 앞장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력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전등 하나 끄기, 냉난방온도 조절하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가까운 곳은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전기요금도 아끼고 전기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서영(학생 ·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 호국보훈의 달, 투철한 안보의식 갖추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양분되어 있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그러나 근면과 성실로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가는 코리아가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보훈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길 바라며 그 분들을 존경하고 가족을 더욱 돌보는 사회가 되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 나라의 안보와 애국심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박찬용(회사원 · 경기 부천시 소사구)



# 낱말맞히기



## 알림

### 행복관광, 국민이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에 반영할 관광 분야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행복관광, 국민이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관광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제안된 방안들은 검토를 거쳐 새 정부 관광비전에 반영하여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우수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응모자격** 국민 누구나
**공모기간** 6월 21일까지
**신청방법** 전자우편(tour2013@korea.kr)
**공모분야**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창조경제**
- 고부가 관광 육성(MICE · 크루즈 · 의료관광 등)
- 관광기업 육성(관광벤처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세제 지원 · 해외진출 지원 등)
- 융복합 관광 육성(문화예술 · 스포츠 · 미디어 · 스포츠 · 문화재 · ICT + 관광 등)
-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 자격증, 전문인력 양성, 1인 기업 등) 및 일자리 질 제고

▶**국민행복**
- 실버 여행 · 대학생 여행 · 가족여행 · 학습여행 등 소비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발굴
- 지역관광 활성화(지역축제 · 농촌관광 · 산업관광 · 음식관광 등)
- 자연친화형 관광(녹색관광), 지역친화형 관광(공정관광) 등
- 교통(시티투어 · 관광열차 · 고속도로 휴게소), 숙소(호텔 · 한옥 · 캠핑장 · 대체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문화융성**
- 방학분산제, 휴가분산제, 대체휴일제 등 휴가 문화 개선 방안 등
- 한류 확산 방안(드라마, K팝을 이을 차기 한류 관광자원)
- 관광과 스토리텔링,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방안(홍보, 마케팅) 등

**시상내역** 최우수 제안 1명(10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우수 제안 2명(5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장려 제안 10명(1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문의** ☎ 02-3704-9713

### 문화 · 여행이용권 바우처 피싱전화 주의

경제 ·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 및 관광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행이용권(바우처)과 문화이용권(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피싱전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이용권 및 문화이용권(바우처) 사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02-2212-6977로 발신되는 피싱전화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이용권 및 문화이용권 사업 도용 전화를 받으시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18, www.spamcop.or.kr로 신고 바랍니다.

|  | 1 |  | 2 |  |  |
|---|---|---|---|---|---|
|  | 3 |  |  |  | 4 |
|  |  |  |  | 5 |  |
| 6 |  |  | 7 |  |  |
|  |  |  |  |  |  |
| 8 |  |  |  |  |  |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13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2**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남북○○.
**3**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재기하려는 기업에 정부가 희망○○○를 놓아주다."
**5** 겉보기보다 충실한 실속. 겉으로 드러나는 수량, 길이, 무게 등의 헛것을 털어 버리고 남은 실속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6** 살에 박힌 가늘고 뾰족한 거스러미. "손톱 밑의 ○○를 빼다."
**7** '이야기'의 경상도 방언.
**8** 오륜(五倫)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이르는 말.

**세로 풀이**

**1**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조선 시대 실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죠.
**2** 남을 대신해 일을 처리함. 회사에서 부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4**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빠르고 강한 공.
**5** 요즘은 흔히 '아르바이트'를 줄여 이렇게 부르죠.
**6** 봉건 사회에서, 가장권(家長權)의 주체가 되는 사람. OOO제.
**7** 취업 등을 하려면 무엇을 써서 내야 하죠?

**〈위클리 공감〉 211호(6월 3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진가 **3** 계약 **5** 사부자기 **8** 채무 **10** 공기업 **11** 궁궐
세로 **2** 가계부 **4** 약자 **5** 사랑채 **6** 기능공 **7** 협업 **9** 무궁

**〈위클리 공감〉 211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서정희**(대전 중구 계백로) **고찬란**(전주 완산구 신봉로)
**염봉준**(부산 연제구 과정로) **박기풍**(광주 서구 유촌동)
**원영태**(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 애는 내곁에 '든든' 일은 내맘에 '쏙쏙'

## 워킹맘 맘 편하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확대 등 나서

서울 여의도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육아문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잘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12퍼센트나 됐다. 100명이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112명은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각해 정원 대비 대기 인원은 각각 178퍼센트, 172퍼센트나 됐다.

이런 이유로 직장 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부 직장인들의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이 늘어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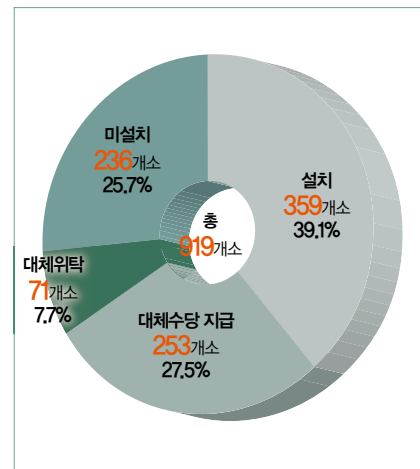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6월 10일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돌봐주는 시간도 가장 길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으로 국·공립(3.85점), 민간(3.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들은 예산 부족과 설치 장소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9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의무화된 919개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59곳(39.1퍼센트)에 불과하다. 324곳(35.2퍼센트)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었고, 236곳(25.7퍼센트)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 39.1퍼센트에 불과한 의무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이 2017년까지 7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현황** (2012년 9월 기준)

### 설치 규정 지키지 않는 기업 공개키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를 늘린다. 의무설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2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것도 옥외·실내·대체 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면 기업 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회사 조리실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건물을 신·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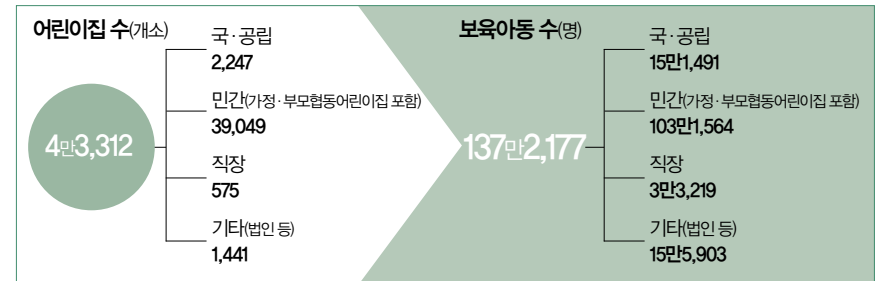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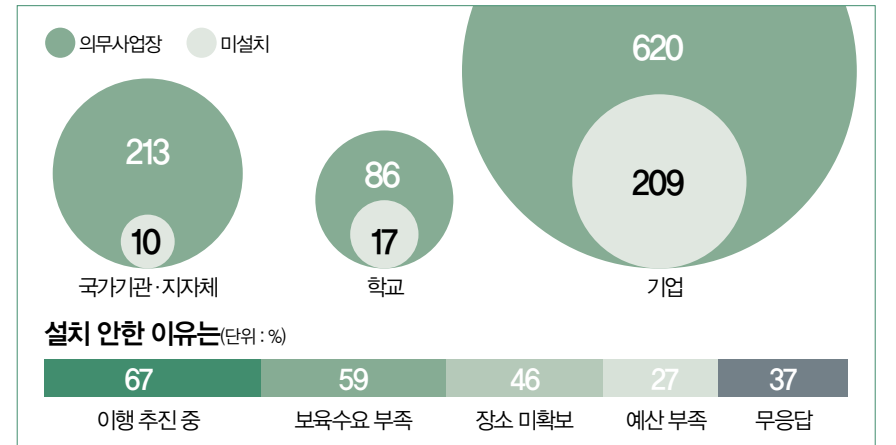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면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업주가 주는 보육수당이 직장어린이집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장어린이집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G

글·박기태 기자 / 사진·오상민 기자

**직장어린이집 확대**

| 부 모 | 국 가 | 기 업 |
|---|---|---|
| ●야간보육 등 맞춤형 보육 제공<br>●높은 부모 만족도 | ●재정부담 완화<br>●국민 보육수요 충족 |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br>●우수 여성인력 확보 |

**전국에 어린이집 얼마나 있나** (2013년 3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2012년 9월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 수백 년 전통 종가음식 관광상품 뜬다

## 문체부-농식품부 '음식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고택·종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 종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종가음식이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1일 서울 가회동 한옥 락고재에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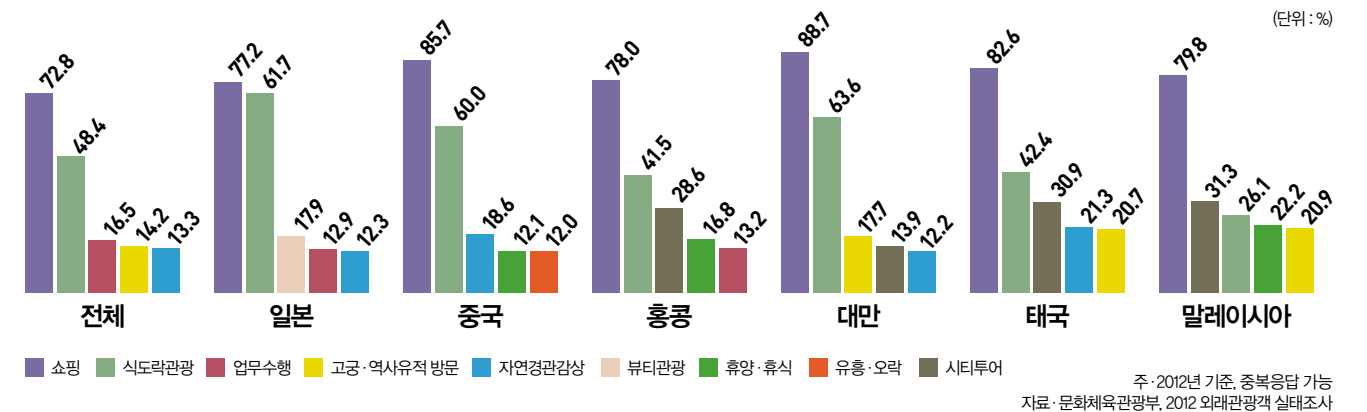
동장, 우엉전·버섯전, 양산적, 고추소찜, 전복구이, 수란채국, 북어보푸라기, 약고추장…. 500여 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온 종택인 경남 거창 동계 정온 종가에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내놓는 '손님맞이 상차림'이다.

오색한과, 동곳떡, 웃기떡. 경북 봉화 안동 권씨 충재 권벌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제사 음식이다. 충재 종가는 불천위 제사를 올릴 때 이 음식을 빼놓지 않고 제단에 올린다. 불천위(不遷位)란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은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보존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를 말한다.

안동 의성 김씨 지촌 김방걸 종가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이 있다. 건진국수다. 지촌 김방걸 종가에서는 기별 없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음식을 대접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종가에는 전통적으로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 있다. 이런 종가음식이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1일 서울 가회동 전통 한옥 락고재에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두 부처는 우리 문화와 고유한 음식을 활용해 이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융합해 음식관광 상품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음식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방한 외래 관광객 주요 참여활동

음식은 이제 단순한 먹을거리에 그치는 않는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외래 관광객의 주요한 방문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며 주로 하는 일은 쇼핑이나 식도락 관광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1만2,021명을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머물며 주로 무엇을 했느냐'(중복응답)는 질문에 쇼핑 72.8퍼센트, 식도락 관광 48.4퍼센트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이 갓 담근 김치를 맛보고 있다.

### 전국 대표음식 '맛 지도' 제작

두 부처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고택·종택 등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와 종가음식 등 전통 음식을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을 적극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또 우리 고유의 음식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고택·종택과 연계한 종가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 올 하반기 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매년 5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종가음식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모델도 개발한다. 또 전통음식 생산현장과 명인 등을 발굴해 관광 상품화를 추진해 나간다.

우리 음식의 국내외 홍보도 강화한다. 주요 국제행사나 문화교류를 활용한 음식 이벤트에 공동 참가한다. 한류 관련 이벤트(K-food in K-Pop)와 연계한 음식 홍보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음식 관련 국제 콘퍼런스도 공동 개최하고 해외 문화기관을 활용한 한식문화 홍보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음식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광객들이 전국의 대표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맛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 부처의 업무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시너지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협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음식관광이 활성화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G

글·박기태 기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 더 낮췄다

## 4·1 부동산 후속 대책… 소득기준은 높이고 대출조건·금리는 크게 낮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서구에 마련된 한 본보기집을 찾은 관람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주시하던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를 두 달여 만에 1천만원 더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는 5조원 예산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한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도 3.5 ~3.7퍼센트에서 2.6~3.4퍼센트로 낮아졌다.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퍼센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3.5퍼센트 만기 20년, 금리 3.7퍼센트 만기 30년 등 두 종류밖에 없던 대출금리 유형도 소득별·만기별로 다양화했다. 총 12가지 유형으로 늘려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득별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천만~4천만원 이하, 4천만~7천만원 이하로 나눴다.

만기별로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만약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연 2.6퍼센트, 연소득 4천만~7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3.4퍼센트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다만 이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퍼센트, 30년 만기는 3.4퍼센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자녀(0.5퍼센트포인트), 장애인(0.2퍼센트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퍼센트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 구분 | | 기존 | 변경 | 비고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5조원 예산 범위 내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
| | 금리 | 3.5%(20년), 3.7%(30년) | 2.6~3.4%(소득·만기별 차등) |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4,5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
| | 금리 | 3.5% | 3.3% | |
| (공통)단독세대주 | | 만 35세 이상 대출 가능 | 만 30세 이상 대출 가능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변경

| 기존 | 변경 | | | | | 비고 |
|---|---|---|---|---|---|---|
| | 소득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만기 | | | | |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3.5%(20년) 3.7%(30년) | 2천만원 이하 | 2.6 | 2.7 | 2.8 | 2.9 | ▶다자녀, 장애인 등 우대금리 동일 적용 ▶기존 대출자는 3.3%(20년), 3.4%(30년) 적용 |
| | 2천만~4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3.1 | |
| | 4천만~7천만원 이하 | 3.1 | 3.2 | 3.3 | 3.4 | |

### 저리대출 대상, 모든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확대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도 추가로 인하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대출 대상을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30대 초반 속칭 '낀 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경감돼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월 12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달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8천억원 줄었다가 2월에는 1조3천억원 증가하고 3월에도 1조5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다 4·1부동산대책이 나오자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월에는 4조2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도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에는 2,800가구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6천가구, 5월에는 6,200가구 등을 기록했다. G

글·박기태 기자

# 이제 장마철 안전대책 세웠나요?

올여름은 불볕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통상 6월 하순에 시작되는 장마가 올해는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보했다.

올해 장마는 중부지방부터 시작된다. 기상청은 1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돼 19일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12일 전망했다. 중국 북부지방의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장마전선이 형성돼 북한과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할 예정이다.

태풍은 6~8월 사이 9~11개의 태풍이 발생해 그중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7호 태풍 카눈, 14호 태풍 덴빈, 15호 태풍 볼라벤이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혔다. 태풍과 장마에 대비하는 행동요령을 미리 인지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이 북상 중인 가운데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시 공무원들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 가정과 상점은 노후시설물 보수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상점에서는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두는 것이 좋다.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는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전기 수리는 태풍이 지나간 뒤로 미룬다.

태풍 예보 시 유리창 파손을 막으려면 테이프와 젖은 신문지를 붙인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때도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일명 '태풍신문지'가 주목을 끈 바 있다. 보수를 했더라도 태풍이 불 때는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 사전 숙지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거주지역이 수해 상습지구·고립지구·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피해 우려지역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와 헬기장 위치를 알아둔다. 위기 시에 대비해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이웃 간에 연락처를 공유한다.

## 농어촌 지역은 농수산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농어촌 지역은 농수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업시설물과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해 농작물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배수로를 정비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하천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대비한다. 과수원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 부직포 등으로 덮고, 농기계와 가축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는다.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은 바람에 날아갈 것을 대비해 단단히 묶어둔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낮은 강도의 태풍에도 쉽게 망가져 큰 피해를 야기한다. 바람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날아가거나 뽑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복재가 찢어진 곳을 사전에 찾아 비닐접착용 테이프를 붙인다.

## 해안지역은 태풍·호우 시 어망과 어구 미리 철거하고 선박 대피

해안지역에서는 태풍·호우 시 어업활동을 중단하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배의 파손 부분을 사전에 보수하고 통신장비와 항해장비·구명장비가 튼튼한지 점검한다. 대피선박에는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하고, 어망과 어구는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철거해서 피해를 줄인다.

## 공사장에서는 취약요인 정비

공사장에서는 공사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하천 주변의 공사장은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위 상승에 대비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이동 중 태풍을 만나면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

이동 중 갑자기 태풍을 만날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보행자는 우산을 쓰지 말고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전신주와 큰 나무 밑을 피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호우에 휩쓸려 갈 것을 대비해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하천 변에 세워두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지하공간에 주차한 차량을 고지대로 이동시킨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저단기어로 맞춰놓고 운전한다.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 등은 피하고 평소 잘 아는 길을 이용한다.

## 등산 중 호우를 만나면 서둘러 하산

태풍·호우 시 등산객은 하산을 서두르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해야 한다. 물살이 거세 휩쓸릴 위험이 큰 계곡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강가 근처에서 야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던 중에는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최병진 사무관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서 이행하면 전반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며 사전준비를 강조했다.

스마트폰으로 재난 속보를 받는 방법도 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이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재난알리미)과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난알리미를 설치하면 기상특보정보 등 실시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재난알리미 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위험 신고도 가능하다.

### 위기경보 수준

| 구분 | 판단기준 |
|---|---|
| 관심(Blue) | ● 태풍 빈발 시기<br>●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br>● 호우 빈발 시기 |
| 주의(Yellow) |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br>●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 경계(Orange) |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br>●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 심각(Red) |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br>●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 가정에 필요한 10가지 태풍·호우 대책

- 태풍과 집중호우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듣는다.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 경우에는 신속히 귀가한다.
- 집 주변을 살피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여 집 안으로 옮기거나 단단히 고정한다.
- 현관과 창문 틈, 대형 유리창에 비닐 테이프를 붙인다.
-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한다. 예비전지도 잊지 않는다.
- 언제든지 피난할 수 있도록 가정용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둔다.
- 침수에 대비해 가재도구를 가능한 한 높은 장소로 옮긴다.
- 장애인과 노약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가스, 전원 등은 재해발생 우려 시 완전히 차단한다.
- 가족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피난장소와 대피로 등을 확인해둔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방재청

글·김슬기 기자

소방방재청 www.nema.go.kr

# 태국 치수사업 6조원 공사 사실상 수주

## 한국수자원공사, 방수로·임시저류지 건설 우선협상자에 선정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태국의 통합물관리사업 국제 입찰에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6조2천억원 규모의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사업을 사실상 수주했다.

국토교통부는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가 6월 10일 통합물관리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9개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으며, K-water가 전체 사업비의 56퍼센트를 차지하는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등 2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K-water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방수로 사업은 인공 물길과 도로를 함께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조8천억원(전체 사업비의 53퍼센트)에 달한다. 총 2,910억 바트(한화 약 11조원)의 태국의 통합물관리사업 9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방수로란 도심과 하천을 연결하는 비상수로로, 홍수 발생 시 도심에 물이 차지 않도록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

임시저류지 사업은 태국 중부의 나콘사완주 상류에 저류용량 30억 입방미터 규모 이상의 임시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00억원(전체 사업비의 3퍼센트)이다. 저류지는 홍수 발생 시 불어난 강물이 하천변 또는 도심 주변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물그릇 역할을 한다.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조성 등 2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water 외에 태국과 중국의 컨소시엄인 'ITD-파워 차이나'가 전체 물량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댐과 폴더(수위 조절이 가능한 간척지), 하천관리 등 5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 태국-스위스 컨소시엄인 '록슬리(Loxely)-AGT'와 태국 컨소시엄인 '서밋'이 각각 1,500억원 상당의 물관리시스템과 5,300억원 규모의 폴더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포함됐다.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물관리사업은 차오프라야강의 상습적인 범람으로 태국 중부지역이 입고 있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차오프라야강 8개 유역과 기타 강 17개 유역 등 태국 주요 강 25개 유역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다.

태국을 방문 중이던 정홍원 국무총리(가운데)가 5월 21일 태국 관개청 관계자들과 함께 방콕의 랏포수로를 시찰하고 있다. 랏포수로는 차오프라야강의 홍수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7월 태국 정부의 물관리 사업 국제입찰계획 발표 이후 사전적격(PQ)심사(2012년 9월), 분야별 최종 예비후보 선정(3배수·2013년 2월), 최종 제안서 제출 및 심사과정(2013년 5~6월)을 거쳐 이루어졌다.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과 가격협상 등을 거친 다음 6월 중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K-water는 2009년부터 태국에 진출해 물관리사업 수주에 힘써왔으며, 우리 정부도 외교력을 통해 이번 수주를 지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등과 면담하여 이번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활동을 한 바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 금융을 알면 미래 신용이 보인다

## 전국민 금융 조기교육 담당할 종합포털 '금융e랑' 론칭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세형(25)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원을 갚지 못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신용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별생각 없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금융이나 신용이란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 대출과 연체이자의 무서움을 몰랐다"고 털어놨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처럼 소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과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해서라는 얘기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의 원인이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융교육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금융교육 콘텐츠가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에 모두 모인다.

금융문맹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개인을 금융사기에 노출시킨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사기피해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퍼센트가 금융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는 3.6퍼센트, 당할 뻔한 경우는 17.4퍼센트였다. 실제 금융사기를 당한 응답자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3,825만원이다. 금융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지 못해서다. 응답자 중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8퍼센트에 불과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03~2013 청소년 금융이해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교생 중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교육 콘텐츠는 개별 기관별로 제공됐다.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는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야 해서 불편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사용자들이 금융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종합포털 '금융e랑'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개별 기관별로 제공해왔던 금융교육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금융교육 종합포털 사이트다.

금융e랑은 금융교육 콘텐츠를 리스트 형태로 모아 이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찾고 해당 콘텐츠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다.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는 '추천교육자료'로 따로 모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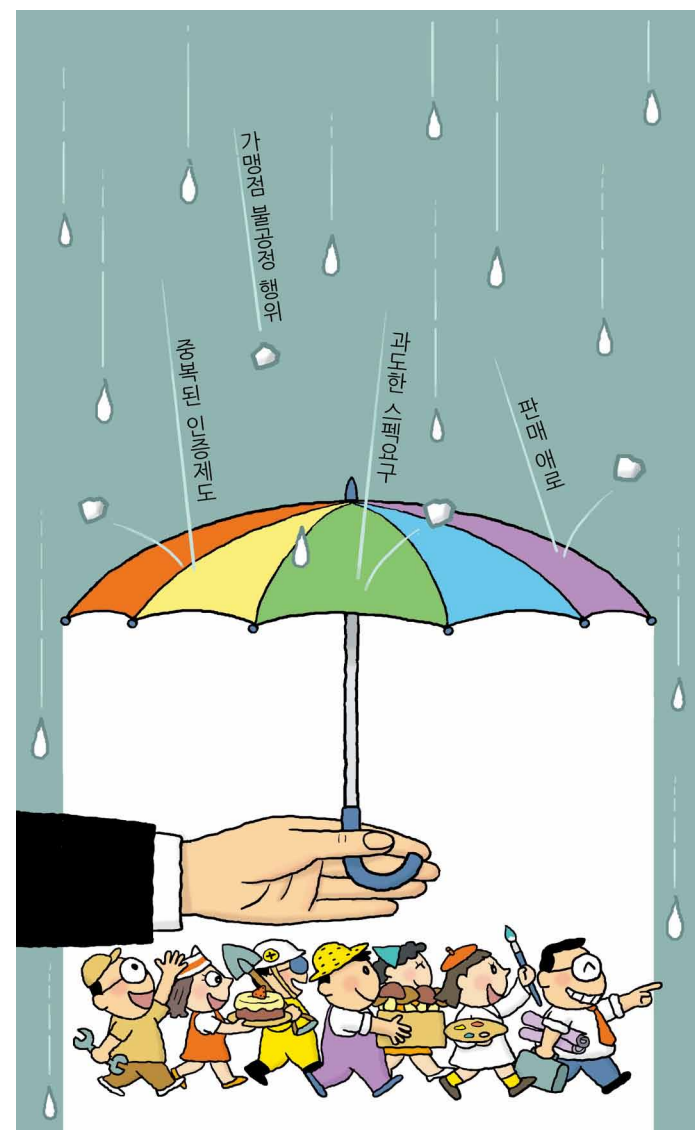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금융교육 콘텐츠를 이용대상과 금융분야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청소년·대학생·직장인·일반인으로 나누고 금융분야별로는 생활금융교육·신용관리·금융사기예방·자산관리·대출·은퇴설계 6개 분야로 분류해 맞춤형 검색을 돕는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학생-대출'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G 글·함승민(이코노미스트 기자)

금융교육 종합포털 www.금융e랑.kr

# 빗속의 우산 같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크기는 작아도 큰 고통을 준다. 뽑지 않으면 오랫동안 따끔따끔하고 아리다.
이런 '손톱 밑 가시'를 누군가가 나서 뽑아준다면 이보다 시원한 일은 없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이 바로 이 '가시'다.
정부가 '가시' 뽑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 잘못된 관행·제도 고쳐 공정한 경제질서 만든다

## 세 차례에 걸쳐 '손톱 밑 가시' 1,133건 발굴해 224건 개선

박근혜정부가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잘못된 규제나 관행을 일소해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국민 다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5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매우 고통스럽고 성가시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는 몹시 괴롭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손톱 밑 가시'부터 빼내야 한다. 가시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가시에 쏠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생긴다.

박근혜정부가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작지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기업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규제나 관행을 일소해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성장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국민 다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손톱 밑 가시'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월 말 304건, 3월 말 432건, 5월 말 397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133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했다. 이중 6월 17일 현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6월 말까지 추가로 발굴된 397건 중 약 100건을 더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중소기업 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의 어려움이나 국민 불편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도 6월 말까지 구성한다.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에 중소기업 분야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어떤 규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환경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로 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퍼센트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5년 후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52.2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조사응답자 10명 중 9명(87.6퍼센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앞으로 잘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손톱 밑 가시로 회자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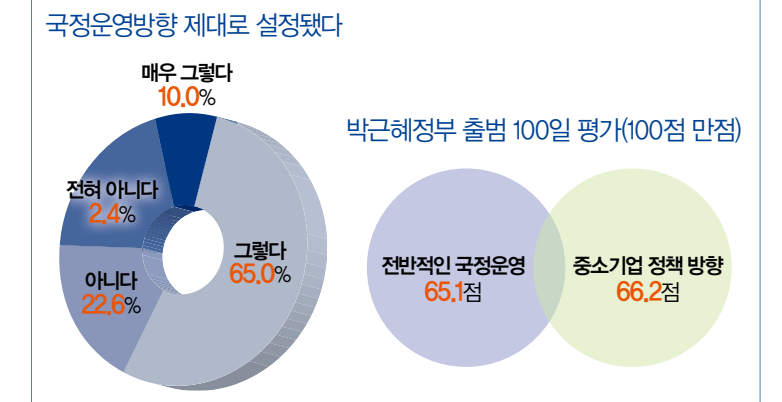
### 박 대통령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삶 세심히 살펴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큰 틀에서 보면 '손톱 밑 가시 뽑기'도 국민행복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박 대통령은 6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하나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참석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모든 부처 공무원이 국민 삶에 적극 관심을 갖고 어떤 게 '손톱 밑 가시'인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을 이루고 함께 나누는 복지 기반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G

글·박기태 기자

### '중소기업이 바라 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박근혜정부 중소기업 관련 정책방향의 실효성(단위 :%)

| | (매우) 높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낮다 |
|---|---|---|---|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 44.6 | 39.0 | 16.4 |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 | 40.0 | 37.6 | 22.4 |
|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 | 38.8 | 37.4 | 23.8 |
|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38.0 | 45.6 | 16.4 |
| 벤처 및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 (창조경제) | 32.6 | 55.0 | 12.4 |
|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32.4 | 47.6 | 20.0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분야별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자료·국무조정실

# ‘존재의 이유’ 애매한 규정들 “모두 바꿔”

## PC방 간편조리·간편장부 사용·가맹점 표준계약서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

일러스트·김희용

한 상가번영회에 정기총회가 열렸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장님들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목 사장님과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 맹 사장님, 그리고 2층에 있는 PC방 피 사장님과 만화방 방 사장님 등이다. 이들의 가상 대화를 들어보자.

**PC방 피 사장** 전국에 인터넷 PC방이 1만4천 개래요.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많아요. 시간당 1천원 받는데, 7년 전에도 1천원이었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만화방 방 사장** 원래 PC방은 사용료로 돈 버는 거 아니잖습니까. 각종 과자와 음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잘 나가는 컵라면을 캐시카우(Cash cow,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즉 돈을 벌어주는 상품)로 삼아야 합니다.

**피 사장**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사놨지요. 그런데 그게 단속 대상이더라구요.

**방 사장** 단속 대상? 컵라면이 없는 만화방은 그야말로 고무줄이 빠진 속옷이요, 팥소 빠진 찐빵 아닙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은 분명 만화의 진미와 인터넷의 묘미를 모르는 분들일 겁니다.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장금이’처럼 입으로는 맛을 그릴 줄 아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법인데.

**피 사장**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더군요. 컵라면을 별도로 파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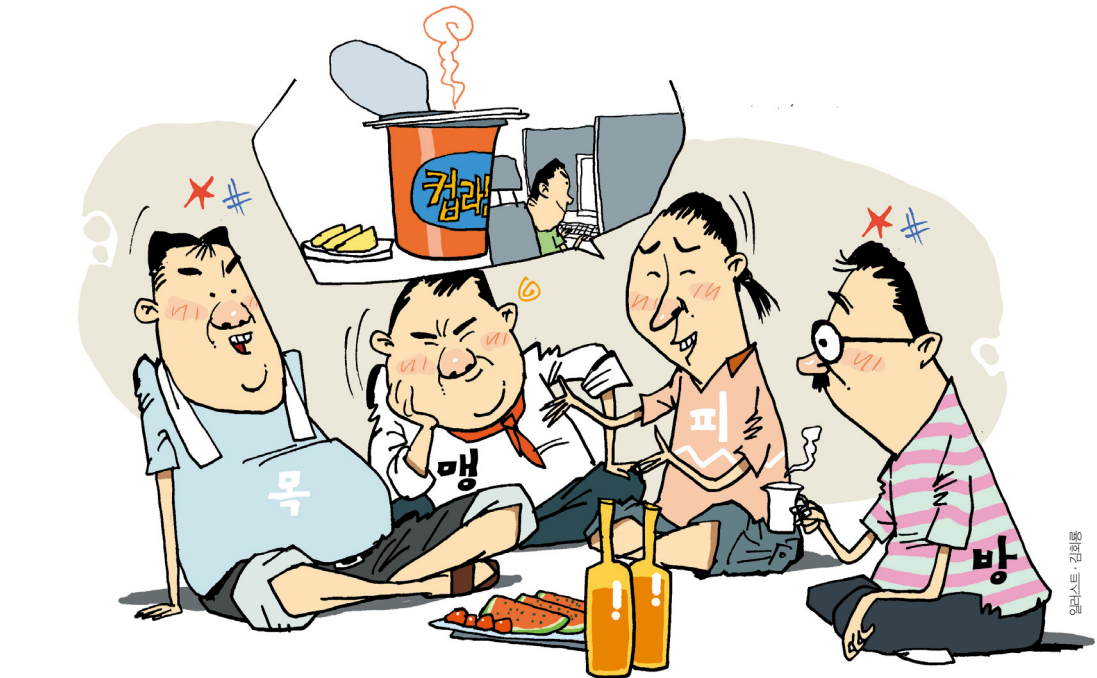
**방 사장** 정보의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시고 시각예술의 스토리텔링에 전념 중이신 고객님들께 더운물 한 번 부어드리는 게 그 무슨 죄가 된다는 건지.

**사우나 목 사장** 그거 올해 12월이면 관계법령이 개정된답니다. 정부에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간편 조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답니다. 이제 두 사장님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지요. 하루 종일 현금 받아서 장부에 기록하는데도 나중에 또 장부정리를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현금에다가 나가는 물값, 기름값 등등 빼고 세금 내면 되는 일인데, 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복식부기를 적어야 한다구요.

**방 사장** 그러면 목 사장님, 회계사처럼 막 계산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목 사장** 그럴리가요. 수십 년 지역 주민들의 피부 관리에 전념하던 제가 ‘복식’이 뭔지 ‘단식’이 뭔지 어찌 알겠습니까. 첨엔 그거 탁구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복식부기, 매년 세무사 찾아가서 다 맡깁니다.

**피 사장** 세무사요? 돈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 사장** 한 80만원씩 줘야 합니다. 목욕비 한 사람당 8천원 하는데, 80만원이면 100명 목욕비예요. 단지 장부 정리하는 데만 쓰는 건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수건이나 새로 사 넣고, 비누도 향기 좋은 걸로 바꾸면 단골고객인 방 사장님 피부가 한결 산뜻해질 텐데 말입니다. 목욕업 하면서 연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나 음식·숙박업 하면서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반드시 내야 해요.

**프랜차이즈 빵집 맹 사장** 올해 말이면 그런 복식부기 안 쓰셔도 됩니다. 정부가 업종별 과세 형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 의무 부과 대상을 개선할 예정이랍니다.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2,138개소, 1억원 미만인 1,689개소, 1억원 이상인 3,448개소가 그 대상인데요.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된다더군요.

**목 사장** 그래요? 거 참 좋네요. 손톱 밑에 가시가 뽑힌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나저나 맹 사장님 빵집은 요즘 리모델링하고 계시던데요. 전에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던데, 돈 좀 버셨나 봐요.

**맹 사장**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멀쩡한 인테리어 뜯어라 고쳐라, 몇 년에 한 번씩 싫어도 울며 겨자 먹깁니다. 그것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겨야 된답니다. 그게 가맹점 계약 조건이래요.

**방 사장** 그래도 가맹본부가 업체를 지정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도 주겠죠 뭐. 안 그런가요?

**맹 사장** 그럴리가요. 요즘 갑을 관계가 어쩌고 하는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슈퍼 울트라 을입니다. 계약서를 따져보면 ‘노예계약’에 가깝습니다. 좋아서 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판촉행사 해야 한다, 사은품 줘야 한다 하면서 가맹점주들한테 물건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할 때 걸어뒀던 보증금을 떼이게 돼요.

**목 사장** 거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래도 올가을(9월)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표준가맹계약서가 만들어진답니다. 판촉처럼 중요한 사항은 가맹본부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도 아무렇게나 산정할 수 없도록 해요. 산정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현재) 가맹본부 2,405개, 가맹점 17만926개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수해야 할 겁니다.

**피 사장** 그렇다고 표준가맹계약서대로만 진행되겠어요? 갑은 갑이고, 을은 을인데….

**방 사장**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말씀드리건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돼야지요.

**목 사장** 그런 문화도 번지게 될 겁니다.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거든요. 표준가맹계약서 하나 던져놓고 지켜라, 이러는 게 아니죠. 갑과 을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피 사장** 창조경제를 위한 생태계도 그런 게 아닐까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창조적인 생산에 참여하는 거죠.

**방 사장** 그래, 그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만화방에 가서 컵라면이나 한 그릇씩 하십시다. G

글·박상주 기자

# 규제 풀고 없애고… '성장 날개' 달아준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 위한 세부과제 속속 실현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는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올해 중 이를 실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5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간담회' 현장.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2시간에 걸쳐 금융 부문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의 문제점을 실무담당자들에게 건의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들었다.

경북 문경에서 상·하수도관을 제조하는 대경산업. 대표 임성문(67)씨는 15년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품질과 안정성 등을 검사하는 인증제도에 불만이 많다. 제조업 특성상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할 때가 많은데, 불필요한 인증이나 내용이 비슷한 중복 검사가 많아 시간은 물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검사·인증제도만 1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다품종소량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하죠. 인증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검사·인증제도는 185개에 이른다. 그중 법적 인증이 112개, 민간 인증이 73개이다. 한 기업당 평균 보유 인증 수는 15개에 달한다. 이에 대한 관리 비용만 해도 한 해 많게는 7천만원까지 든다.

민관을 통틀어 인증기관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산업별로 저마다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 대표는 2011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이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운영을 줄이고, 중복된 검사를 하나로 통일해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 먼저 폴리에틸렌 수도관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심사를 할 때 적용하던 위생안전기준 인증(환경부)과 KS(기술표준원, 기표원), 우수 단체표준(플라스틱 공업조합) 간 중복을 없앴다.

더불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962년 도입된 KS인증제도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기표원은 현재 진행 중인 KC와 KS인증 간 중복을 없앴다. 두 인증 간 시험항목이 일치하는 84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KC인증만 따면 KS인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환경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건설 하도급 거래 양성화로 권익 보호 나서

임 대표 바람처럼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는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올해 중 이를 실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매출액 2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인력 3인 이상(종합디자인회사는 6억원, 9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디자인 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 기업으로 영세한 편이어서 이 자격 요건을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립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업체들의 육성에 힘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의무(자본금의 40퍼센트) 대상은 신규 발행 주식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렇다 보니 창업투자회사들의 엔젤투자(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00년 5,439억원이었던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 29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중기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투자의무 인정범위를 엔젤투자 주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엔젤투자를 이끌어내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불공정 거래로 그동안 적정 대가를 받지 못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사정도 나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오는 12월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하도급제도를 양성화해 관련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G

글·백승아 기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계획**

| 개선과제 | 소관부처 | 조치기한 |
|---|---|---|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 산업부 | 2013년 12월 |
| 창투사 및 창투조합 의무투자 인정범위 확대 | 중기청 | 2013년 6월 |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 국토부 | 2013년 12월 |
| 알뜰폰서비스사업자(MVNO)에 대한 의무제공 서비스 확대 | 미래부 | 2013년 6월 |

**불공정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로 방지한다**

산업부가 6월 13일 디자인업체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디자인 계약 시 업체 간 자주 발생했던 불공정행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계약서는 제품 디자인(일반형·성과보수형),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3개 분야 4종이다. 표준계약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최종 결과물의 검사·승인 절차와 작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더불어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됐던 '갑을(甲乙)' 표기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 시장개척단 참여 미국 월마트 등 대형마트 진출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 "독창적 기술 다지며 시장개척 기회 잡아"

이길순 대표는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의 CEO로 변신했다.

2005년 4월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및 특별상, 2008년 5월 제43회 발명의 날 대통령상, 2009년 10월 여성기업인상, 11월 장영실 산업기술대상, 독일 구텐베르크 발명전 은상, 2010년 12월 제품안전경영대상, 2011년 6월 AT&D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모두 한 중소기업이 받은 상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 26개국에 공기청정기를 수출하는 에어비타가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일궜으니 대단한 이력이 있을 것 같지만 에어비타를 이끌고 있는 이길순(49) 대표는 사실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소박하게 집안 살림을 챙기던 그에게 작은 사건이 있었다.

"반지하에 사는 친구 집에 갔다가 감기를 달고 사는 친구의 아이를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중 일본에 사는 언니 집에 갔는데 방마다 놓여 있는 공기청정기를 보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싸지 않으면서, 작고 가벼운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공기청정기는 있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고 크기도 컸다. 웬만한 집에서는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한 후 가족들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가족 어느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 그 당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무관심에 오기가 생겼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초소형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잡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일본에서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만났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마침내 제품이 완성됐다. 가로 17센티미터, 세로 4.8센티미터, 높이 9센티미터의 초소형 공기청정기 '카비타 T3'였다. 무게는 152그램에 불과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마치 자식을 하나 더 얻은 기분이랄까요?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제겐 또 하나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막내죠.(웃음)"

**가족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사업 시작**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가며 제품 테스트를 마쳤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제품을 들고 다니는 곳마다 퇴짜의 연속이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당시만 해도 공기청정기는 크기가 커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자연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작은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깨끗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결국 포기해야 하나, 극단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벽에 걸린 세계지도가 눈에 들어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세계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분명 세계 어딘가에는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을 테니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첫 번째 정복지는 제조업 부문 세계 1위를 다투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웬만한 대기업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꼼꼼함을 자랑하는 나라였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 홈쇼핑에 진출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도요타자동차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납품하게 됐다. 2005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독일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후 세계 곳곳에 수출길을 열었지만 미국 시장은 일본, 독일과는 또 달랐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시장 개척은 요원했다. 또 한 번의 시련도 겪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는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에어비타의 초소형 공기청정기 '카비타'.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아주 많이 비싼 제대로 된 과외 수업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사업을 이어가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중소기업청에서 미국 B2C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개척단을 모집했는데 에어비타가 그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에어비타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의 척도로 불리는 월마트 등 대형 마트 입점에 성공했다.

그의 노력은 제품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AICI(복합 이온화)와 IODT(이온 최적화 진단)는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에어비타만의 기술이다.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다 보니 지금까지 내놓은 제품이 단 세 가지뿐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기술력과 품질에서 글로벌 기업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술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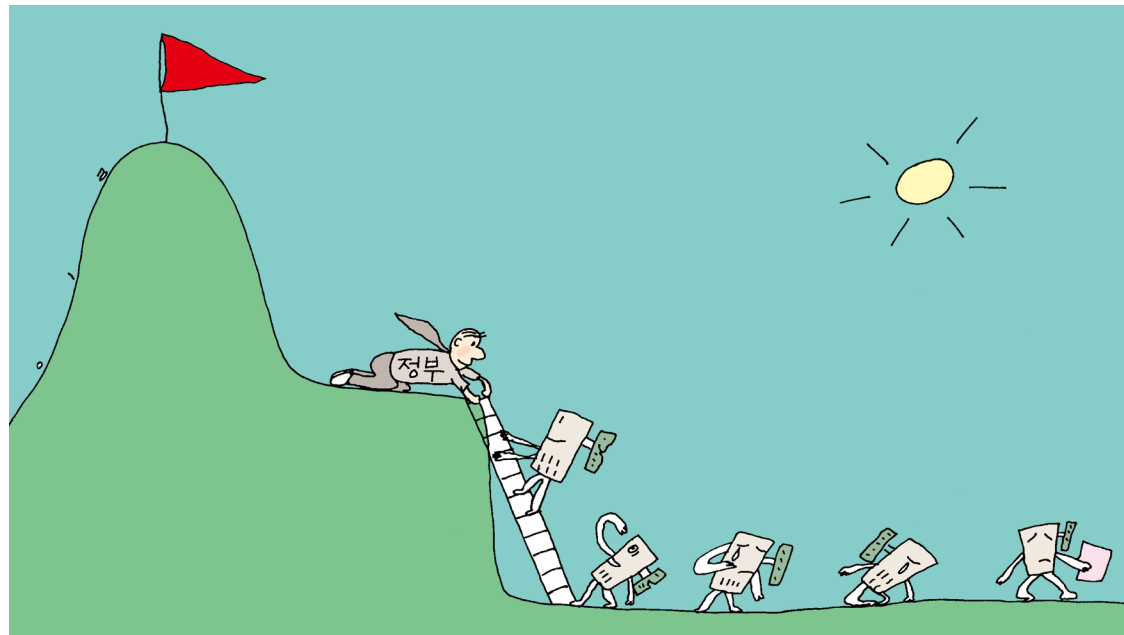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에어비타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랑'일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공기청정기에 담으려고 애썼으니까요. '공기 비타민'이라는 그 이름처럼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영양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G

중소기업청 제공

# ‘다시 설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예산 2배 늘려… 국세청·고용부도 실효성 있는 지원

앞으로 재기기업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재정적인 난관 등 한계에 부딪혀 재창업을 주저했던 기업인들은 근심을 덜게 됐다.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리는 등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강일구

“암담했어요. ‘이대로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경기도 김포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2010년 23년 동안 열정을 바쳐온 사업체를 잃었다. 외환위기 등 몇 차례 고비의 순간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던 기업이었다. 그러던 기업이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됐으니 박 대표의 가슴은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었다.

연평균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의 대표에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박씨는 망연자실했다. 16억원에 달하는 빚더미는 그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다. 결혼한 큰아들은 연대보증으로 빚 독촉에 시달렸고, 이를 보다 못한 남편은 박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데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한 그는 몇 개월을 갑갑한 병실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반평생 열정을 다해 일궈온 회사를 허무하게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그는 재창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실패한 사업가에서 2년 만에 연매출 5억원의 중소기업 사장으로 변신한 박승자(53) 케이피전자 대표의 이야기다. 그는 2011년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마련한 재기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에 참여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2011년 8월 중소기업청(중기청) 공익재단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경남 통영 죽도에서 4주 과정의 재기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를 3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박씨는 그곳에서 사업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며 세상과 맞설 각오를 다졌다. 그는 캠프를 마치고 나와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거래처를 돌며 일감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일감은 얻었지만 당장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문을 두드렸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2010년 3월부터 재창업기업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창업자금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신용미회복자는 총부채 규모가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 납세담보면제 금액 늘리고 체임 선지급 비율은 낮춰

지난해 박씨는 중진공으로부터 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의 도움에 힘입은 케이피전자는 최근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360도 회전용 부품 ‘슬립링’을 개발했다. 매출 성과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2억원이던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배를 넘는 5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박 대표와 같은 재기기업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재정적인 난관 등 한계에 부딪혀 재창업을 주저했던 기업인들은 근심을 덜게 됐다. 정부가 재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재창업자금의 규모를 늘린다. 올해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예산은 총 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 재기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 계획**

| 개선과제 | 소관부처 | 조치기한 |
|---|---|---|
| 재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제한 완화 | 중기청 | 2013년 6월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고용부 | 2013년 12월 |
| 회생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미래부·산업부·국토부·소방방재청·문화재청 | 2013년 12월 |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면제 확대 | 국세청 | 2013년 6월 |

재창업기업들의 사업 여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분류된 재창업기업들은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기청은 올해부터 회생인가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16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취약한 자금력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중소기업들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월 중 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5천만원이었던 납세담보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납세담보는 징수유예를 신청한 자에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융자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까지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들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50퍼센트 선지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영세기업들에는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퍼센트 선지급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G

글·백승아 기자

# 국민이 불편 느끼면 "바꾸는 게 정답"

## 국무조정실 130개 과제 중 불필요한 서류 요구·고무줄 재량권 등 우선 손질

국민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고질적 문제들로 지적돼 왔지만 관공서 등이 미처 고치지 못했던 각종 관행들을 개선하고 있는 것. 박근혜정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편의적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행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행정이 국민에 맞추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중앙포토

공무원 편의에 따라 국민이 겪어왔던 불편이 줄어 관공서의 민원상담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각종 신고·등록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다니다 보면 '이거 꼭 찾아가서 서류를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정보만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도 일일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정신없이 바쁜데 단 몇 분 일을 보자고 관공서를 찾아야 할 때면 짜증이 밀려오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을 '손톱 밑 가시 뽑기'로 보았다.

올 연말부터 법인 차량 등록변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등록변경을 위한 수수료가 없어지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인이 주소를 변경하면 차량 변경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법인 차량 주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을 할 때 차량 한 대당 8,800원의 변경 수수료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지원플러스'를 운영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온라인에서 등록신청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0만5,958건의 법인 차량이 변경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번거로움이 컸다"면서 "각 시스템 간 연계처리를 통해 등록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일괄처리되므로 법인들의 차량관리 업무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관행도 폐지된다. 민원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것도 관공서가 서류를 요구해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숙박업·목욕탕·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다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하는 일이 그런 경우다.

### 폐업신고 때 영업신고증 제출 요구 없애

2008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을 보면 폐업을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해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여전히 관공서에서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실제 여전히 많은 관공서 홈페이지를 보면 폐업신고 때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려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라는 이야기다.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면 각종 면허세를 완납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5일 정도 걸린다.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데도 민원인을 여러 차례 오가게 하는 등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관행들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로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 역시 행정 관행에 속한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기준이 대표적이다. 이 업종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허가대상이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폐기물처리업 신고·허가기준 7월까지 명확히 분류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폐기물 재활용 공정이 단순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업체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순한 재활용 공정은 수리·수선·파쇄·선별 등을 의미한다. 전체 폐기물 처리업의 60~70퍼센트가 이 같은 소규모 재활용업체에 속한다.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일도 많다.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을 함유한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있다. 운송을 할 때마다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일일이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관련 자격증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여러 시간의 강습교육 등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면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위반이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새로 발급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생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자격증의 발급이나 유효 여부는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만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관련 자격증 휴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굳이 의무적으로 지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G

글·박상주 기자

# "잠재력을 평가하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가동

## 과도한 '스펙 쌓기' 막고 직무관련 경험과 역량 중심 채용관행 확산 기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아람(19)씨. 그는 서울 선일여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인턴 일반 전형'에 지원했다. 고졸 학력인데도 그는 대졸자 800여 명을 제치고 일반 전형에 합격했다.

영어성적 제한을 없애고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뽑은 공단의 채용 방침 덕분이었다. 박씨는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고졸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는 정부 권고에 따라 청년 인턴의 20퍼센트를 고졸로 뽑는다. 하지만 박씨는 일반 전형에 지원을 했고 공단이 청년인턴제를 시행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일반 전형에 합격한 고졸자가 됐다.

"일반 전형 채용 공고를 읽어봤는데, 고졸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왕 지원하는 거 젊은이의 패기를 보여줄 겸 일반 전형에 서류를 내자고 결심했죠. 고졸 청년인턴에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 전형에 지원한 건 순전히 도전 정신 때문이었어요. 일반 전형에 고졸이 지원했으니 특이해서라도 한번쯤 나를 쳐다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박씨는 흔히 말하는 '스펙'이 전혀 없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 경험도 없었고 자격증도 전무했다. 하지만 공단의 자기소개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없었다.

공단은 올해부터 출신 학교와 수상 경력 등 간단한 인적 사항만 기입하는 이력서를 만들었다. 직무연관성이 떨어지는 학점이나 영어 성적, 가족 관계, 직무 관련 경력을 적는 란을 전면 없앴다. 박씨는 "일반 기업이 받는 이력서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달라서 얼떨떨하기는 했다"며 "무언가 다르구나 싶기는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입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필기시험(직무능력평가)만으로 지원자들을 뽑았다. 박씨는 선발 공고가 난 후 주어진 2주 동안 한국사, 영어 등이 포함된 필기시험을 준비했다. 수능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내용들이어서 공부하는 데 큰 부담은 없었다. 박씨는 "수능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과목이 시험에 포함돼 있어 오히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박아람씨는 "서류전형이라는 큰 장애물이 없어진 덕분에 근무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박씨가 대입을 전혀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다. 미술공부를 하며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박씨는 대입에 실패하면서 재수와 취업을 놓고 고민했다.

"수능을 본 직후 이 점수로 대학 가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대 입시를 위해 재수를 하려면 돈이 만만찮게 드는 데다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기 싫어 취업을 결심했죠.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미술을 배우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 열정·잠재력 가진 청년들 뽑아 '멘토스쿨' 만들어

박씨는 오는 10월까지 총무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인턴 기간을 마치면 논술·프레젠테이션·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인턴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합격한 청년인턴 57명 중 1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박씨를 제외한 인턴 전부가 대학 졸업생이다.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으로 다가올 법도 하지만 박씨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턴 근무를 시작하면서 제 인식부터 바뀌었어요. 공단에 지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졸 졸업장으로 '어떻게 직장을 구하나' 불안감이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격증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이 사라졌어요. 지원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가 많다고 하는데 고졸 자격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무엇보다 '해볼 수 있겠다'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부는 이달부터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스펙초월 시스템'을 시행한다. 스펙초월 시스템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불일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해 직무 능력에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정책이다.

6월에 시범운영하는 '멘토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뽑을 계획이다. 참가 청년들에게는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한다. 수료한 청년들은 인재은행에 등록시켜 기업 채용 담당자가 이들을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펙에 가로막힌 청년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각종 성적보다는 개인의 잠재력을 보도록 한다는 취지다. G

글·김슬기 기자 / 사진·박상문 객원기자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인턴 채용

기본지원사항

| 시험장소 | | 희망 근무 지역 | |
|---|---|---|---|

기본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영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이메일 | | | |
| 현주소 | | | |
| 휴대폰 | | 전화번호 | |
| 보훈 | [보훈여부] | | |
| 장애 | [장애여부] | | |

학력사항

| 학교명 | 전 공 | 재학기간 | 구 분 |
|---|---|---|---|
| [고등학교] | | | |
| [전문대] | | | |
| [대학교] | | | |
| [대학교(편입/재입학)] | | | |
| [대학원(석사)] | | | |
| [대학원(박사)] | | | |

수상경력사항

| 상훈명 | 수상기관 | 수상일자 | 수상내역 |
|---|---|---|---|
| | | | |

병역사항

| 병역구분 | | 군별 | | 병과 | | 계급 | | 제대구분 | |
|---|---|---|---|---|---|---|---|---|---|
| 복무기간 | | | | | | 면제사유 | | | |

첨부파일

| 파일첨부 | |
|---|---|
| 파일첨부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 도입한 이력서에는 학점 등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뺐다.

# 예술하는 곳에도 '손톱 밑 가시' 제거!

##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공모로 374명에 월 45만~60만원 창작지원금

경북 포항에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최모(28·여)씨는 예술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 입학했다가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좀 더 빨리 찾고 싶어 대학을 중퇴했다. 그 뒤 일러스트와 스토리보드 작업, 단편영화와 애니메이션 연출 등을 섭렵했다. 요즘은 그래픽 노블 작업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의 여느 예술가와 같이 '예술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생활'을 꿈꾸었지만,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입 창출은 힘들었다. 그러던 그가 지난 3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5개월간 매월 6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씨는 "우리 같은 신진작가들이 예술로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60만원이란 액수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여유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금지원이란 점에서도 편리해요. 전에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지급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또 정산 항목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 재료가 좀 더 싼 곳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했고, 실제 지출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최씨는 "무엇보다 예술작업을 하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된 예술인복지법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2011년 사망) 등이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뒤 문화예술인 처우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KBS 2TV의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박희석씨가 촬영 중 사망,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재차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고, 이를 실현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최씨가 지원받은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의 하나이다.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3월 공모한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1차 수혜자는 최씨를 포함해 374명이다.

사업 유형은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예술 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예술인 산재 보험료지원' 등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예술인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훈련 수당(월 20만원, 2~3개월)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의 30퍼센트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무술연기자를 포함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지난해 11월부터 가능해졌고 올 들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영화 〈베를린〉 촬영장에서 배우 하정우가 정두홍 무술감독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첫 수혜자 나와

배우, 사진작가, 영화 스태프, 무용수, 도예가 등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도 지난해 11월부터였다. 지난 4월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8일 무술연기자 박모(32)씨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남은정 과장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민간 예술단체의 지원 사업과는 달리 우리 재단은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라면 경력,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도 강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이 협약식에는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월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맥주집에서 젊은 만화작가들과 만나 급변하는 만화의 창작 생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국내 만화계를 대표하는 중견작가인 윤태호('이끼' '미생'), 곽백수('트라우마' '가우스전자'), 최규석('습지생태보고서' '울기엔 좀 애매한')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외형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 산업 속의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챙기려 한다. 만화가가 대우받고, 건강한 만화 창작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0억원이 더해져 정부의 한 해 만화산업 예산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며 만화 창작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화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스태프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프랑스는 '엥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제도로 비정규직 공연영상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보장한다. 독일은 1983년 '예술가 사회금고'를 만든 뒤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예술인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SK)'를 도입하고 있다. 예술복지법 시행 첫해, 당장은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이 일시에 해소되기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고 문화복지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 예술인 창작디딤돌 2차 사업에 참여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창작디딤돌 2차 사업 참여자를 6월 27일까지 공모한다. 창작준비금, 창작전환기,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3개 분야 1,226명에게 월 6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한다.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didim2013@kawf.kr) 또는 우편(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2-3704-95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www.kaw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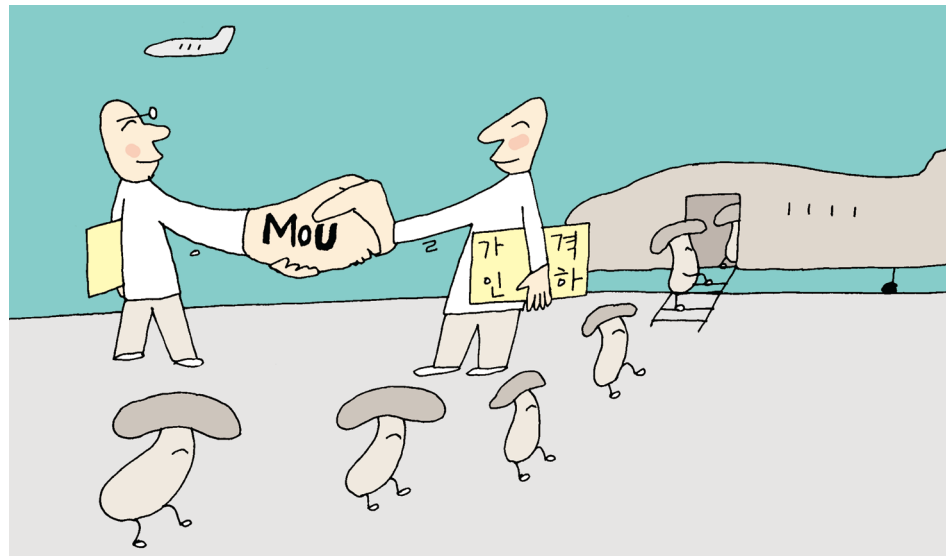
# 신선 농산물 유럽수출 하늘길 넓어졌다

## 항공사 일원화로 요금 내려 딸기 이어 버섯 재배농가에 큰 선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월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한항공 ·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FTA 시대를 맞아 농수산물 수출 판로가 넓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신선식품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기회가 많아졌다. 하지만 운송비가 부담스러워 선박을 이용해 수출하다 보니 신선하던 농수산물이 해외에 도착하면 시들고 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 농수산물의 장거리 수출지원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러스트 · 강일구

한국산 버섯은 해외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 유망 농수산물 30대 품목'으로 버섯을 꼽을 만큼 한국산 버섯은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특히 새송이버섯은 유럽에서 거의 나지 않아 국내산 새송이버섯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한 달가량 걸리는 장기간 해상 운송을 거치고 나면 버섯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버섯 수출업체들이 항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상한 버섯은 해외시장에 도착해 폐기되거나 수입업체의 클레임에 걸리곤 한다.

새송이버섯을 수출하는 (주)한사랑 김종해 대표도 수출 문제로 고민했다. 비행기로 운송하면 하루면 도착하겠지만 배로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배로 운송하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버섯 품질이 나빠져요. 튼튼한 버섯은 30일 운송기간을 버티지만 약한 버섯은 금세 상해버리죠. 그에 반해 항공 수출은 100퍼센트 다 신선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 비용이 비싸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었죠."

한사랑의 사례처럼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운송비다. 배로 운송하면 킬로그램당 299원 하는 운송 비용이 비행기에 실릴 경우 3,500원으로 뛴다. 이 때문에 수출업체 대부분이 식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면서 해상 운송을 이용해왔다.

장거리 수출 시 발생하는 농수산식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aT가 해결에 나섰다. aT는 지난 3월 버섯 수출업체, 대한항공과 3자 회의를 열고 버섯 항공수출을 대한항공으로 일원화하고 유럽의 버섯 수요를 늘리는 마케팅을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5월 22일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럽 지역에 버섯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다. 항공 운송비를 낮춰 유럽으로 판매하는 농수산품의 장거리 수출을 돕는다는 전략이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나서 수출지원 협약 체결

협약의 결과로 유럽 지역으로 버섯을 수출할 때 드는 항공 운임은 킬로그램당 3,500원에서 2,700원으로 줄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출 전 신선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냉동·냉장시설, 신선농산물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aT 수출개발처 농산수출팀 고혁성 차장은 "우리나라 버섯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개별업체가 타진하기 힘든 운송비 인하를 aT가 중간다리를 놓는 형태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낮춰질 운송요금에 대해 버섯 수출업체 쪽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업회사법인 '그린합명' 무역부 한은숙 과장은 "아무리 품질이 좋은 버섯도 배로 운송하면 몸에 반점이 생기는 등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비용이 비싸 엄두를 못 냈던 항공 운송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돼서 반갑다"라고 말했다.

그린합명이 취급하는 버섯은 다양하다. 새송이버섯·갈색만가닥버섯·황금팽이버섯 등이다. 유럽과 미주 전역,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에만 4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한 과장은 "6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아 한 달에 20~30톤 정도를 항공으로 운송하려 한다"며 "버섯 성수기인 9월에도 큰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T는 이미 지난해 10월 대한항공과 MOU를 맺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 특별할인운임을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협약 전에는 한 달에 400킬로그램에 불과하던 딸기 항공 수출량이 지난달 기준으로 13톤까지 확대됐다.

협약에 참여한 대한항공도 항공료 인하로 재배업자·수출업자의 항공 수출길이 넓어진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한항공 항공화물시장개발TF 구본연 부장은 "올 2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정부의 농수산품 수출 전략이 어떤지 알아봤다"며 "한·EU FTA 체결로 내년부터 농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대할 것이란 분석에 따라 대한항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농수산품 수출업체들과 aT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며 운송비 인하를 결정했다. 구 부장은 "국내 농수산품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항공 운송료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한국산 새송이버섯이 이렇게 신선하다는 걸 해외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T 김재수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항공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수출 가능성은 높으나 신선농산물 진출이 어려웠던 러시아, 유럽 등에 고품질 신선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김슬기 기자

# "현장 어려움 호소 들어줘서 고마워요"

## 힐링센터 통해 접수된 '손톱 밑 가시'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정부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의 주 업무는
'손톱 밑 가시' 관련 글을 받고 정리하는 일이다.
매일 들어오는 글을 정리해 보관하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낸다.
이렇게 보낸 글은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전달되고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올라간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정책총괄실. 이곳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손톱 밑 가시' 해소가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시 접수창구인 힐링센터를 마련했다.

접수창구는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각각 설치했다. 이후 각 힐링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해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 회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하고 있는 윤재필씨가 접수된 메일을 확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정책개발부에서 근무하는 윤재필(29)씨. 윤씨의 주업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보낸 '손톱 밑 가시' 관련 글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힐링센터가 생긴 2월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해 가장 먼저 자신의 자리에 놓인 PC를 켠 후 메일을 확인한다. 또 팩스로 보내진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 현재 힐링센터에서는 애로사항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대부분의 애로사항이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된다. 가끔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직접 힐링센터를 찾아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윤씨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10명 정도가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하기 위해 직접 힐링센터를 찾았다.

이렇게 접수된 사연들은 윤씨가 직접 읽어본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것은 발송자에게 전화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한 글들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진다. 그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낸 '손톱 밑 가시'는 5월 10일까지 총 898건에 이른다. 힐링센터가 개소한 2월에는 300여 건, 3월 250여 건, 4월 200여 건, 5월 150건 정도를 전달했다.

기자가 방문한 6월 11일에도 '야간 PC방 출입 미성년자 신고업체 면책 요청'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5건이 접수됐다. 야간 PC방 출입 미성년자 신고업체 면책 요청 건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하는 미성년자를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소년 야간 PC방 출입은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윤씨는 이날 접수된 5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정리해 자신의 PC에 하나씩 저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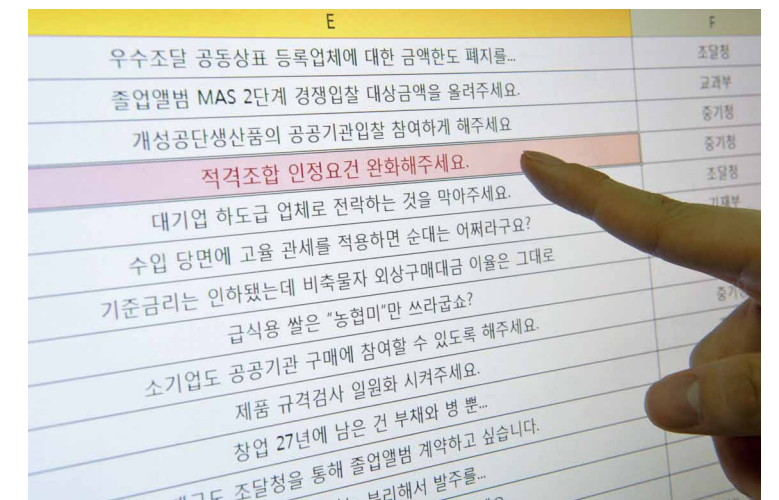
"작은 업체 사장님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100퍼센트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해서 좋다는 분들이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고마워한다."

윤씨가 힐링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손톱 밑 가시'라고 보낸 글들이 너무 추상적인 경우다. "가끔 '경제를 살려달라'든지 '수출이 잘되도록 해달라'는 등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인 글이 있거든요. 이런 제안이라도 접수해야겠지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만큼 그는 경영현장에서 부닥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각자가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재확인 없이 곧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윤씨의 손을 떠나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진 '손톱 밑 가시'는 다시 개선과제별로 분류된다. 중복되는 내용은 합치고 이미 시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또 검토 후 추진해야 하는 것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구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파급효과나 체감도가 큰 분야로도 나눈다.

중소기업중앙회 힐링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수용이 곤란한 사항은 따로 빼놓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야별, 부처별, 법규별로 개선과제를 나눈다. 분류된 개선과제들은 관계부처가 상호 검토를 하고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개선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협의·조정이 이뤄진다. 부처 간 모든 검토를 마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선과제는 곧바로 시행된다. 시행 직후 '손톱 밑 가시'를 건의한 이들에게 처리결과가 회신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로 넘어간다. G

글·박기태 기자 / 사진·김현동 기자

# 기술력이 중소기업 지속성장 기반

## 창조경제 위한 생산성 향상 대책… 상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 형편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뿐이다.

한국 제조업 1인당 생산성은 9만7,382달러(약 1억1천만원)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9,900만원으로 3억5,300만원에 달하는 대기업 생산성의 2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6월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5월 3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 대한민국 판로지원 종합대전'을 열었다.

**창조역량 강화로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인적 자원 경쟁력을 키워 신기술을 개발토록 만드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원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의 토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대학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2011년 기준) 12.4퍼센트 수준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퍼센트까지 확대한다.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협력 사업에 활용한다. 중소기업과 협력을 한 실적은 출연연구소의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전국 15개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값비싼 측정기기가 필요한 시험·분석 등을 지원한다. 대학의 여유 공간에 '연구마을'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모은다. 상시적으로 산학연 협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또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중기청 R&D 사업에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창의적인 과제에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창의적인 과제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정산서류 등 서류제출 부담도 대폭 간소화시켜 준다. '한국형 Grant' 제도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인력이 쉽게 떠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가 시장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시장창출→수익확대→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창조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유망 기술을 가진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투자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 등이 이를 구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공공기관은 사전에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준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품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올해 3천억원)과 제품 디자인 혁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주체와의 융합 및 협력 활성화** 기업이 성실히 노력만 하면 성과가 생길 수 있도록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체와의 융합,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전국 12개 지역별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융합 과제 발굴, 정보제공, 전문가 매칭 등 중소기업 융합 지원 전문기관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3차 이하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 3.0' 운동도 전개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주요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조사·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핵심 기술인력 탈취·기술유용 기업에 검찰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간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해 원가절감을 돕는다.

**부처 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 전문가의 '진단→처방→치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성이 취약한 뿌리기업과 100~199인 사이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기업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부처 간 공동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나가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과거 중소기업에 자금이나 인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창조·시장·융합 등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새로운 생산성 향상 대책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글·박상주 기자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서 길을 찾다

## 공무원·변호사 등 전문직까지 시간제 고용 확산… 임금·휴가 등 고용조건 차별 없애

정부는 지난 6월 4일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률도 높인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있으나 우리보다 앞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인 네덜란드 사례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의 바람직한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중앙포토

세계 최대의 화훼 경매시장인 네덜란드 플로라홀란드의 알스미어 화훼 공판장 전자경매소. 세계적인 화훼 국가인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를 성공시킨 국가로도 명성이 높다.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이려면 취업자를 238만명 더 늘려야 하는데, 이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목표는 93만명이다. 이는 늘어나야 할 취업자 수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한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제시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다.

사실 시간제 일자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 사회에서 시간제는 곧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73시간)에 비해 무려 420시간이나 많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정도로만 줄이고,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취업자를 지금보다 23.6퍼센트나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을 그만큼 올리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바로 OECD 나라 가운데 가장 근로시간이 적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0년 1,381시간으로 우리보다 무려 812시간이 적다. 사실 1985년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50.5퍼센트에 불과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했고, 당시의 한국보다도 훨씬 낮았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인 2008년까지 꾸준히 고용률이 높아져서 무려 76.1퍼센트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네덜란드가 보여준 경제적 성취와 고용성과를 '네덜란드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줄여 신규 취업자 늘려

고용률이 높아진 이 기간 동안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35.5퍼센트에서 70.2퍼센트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여성의 고용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시간제 일자리이다.

여성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은 2011년 60.5퍼센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스위스(45.5퍼센트)보다 무려 15퍼센트포인트 더 높다(OECD 평균은 26.0퍼센트). 우리나라에서 고용률을 높여야 할 핵심적인 정책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모델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네덜란드 모델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말 그대로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공무원, 교사, 간호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까지 시간제 일자리가 매우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또 평등대우법(1996년)을 통해 임금과 휴가, 사회보장, 훈련 등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노사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추진되어 왔고, 차별에 대한 규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진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모델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 확대의 성공사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두운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에 시간제 일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3퍼센트에 이르는 반면, 남성이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은 17.1퍼센트로 여성의 60.5퍼센트보다 매우 낮았다. 이 수준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이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남성 시간제 일자리 비율의 OECD 평균은 9.1퍼센트), 여성과 격차가 너무 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모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노동시간 비교**(2010년)

**시간제 근로 여성 비율**(2011년)

**네덜란드 고용률 변화**(단위 :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일제보다 못한 조건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네덜란드 모델은 고용률 너머의 더 근본적인 목표인 '행복한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여성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큼, 남성들도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들 가운데 한 명인 케인즈(J. M. Keynes)는 1930년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of Our Grandchildren)'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손자 세대가 살아갈 100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주일에 15시간씩 일하면서 여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3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케인즈의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가장 가깝게 접근한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점은 분명하다. G

글 ·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포토

관제탑에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은 고효율 LED 조명 교체로 공항 전체에서 절전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 “새는 전력을 잡아라” 에너지 경영 나서

## 고효율 LED 조명 교체는 기본… 전체 에너지 10퍼센트는 자체생산

세계 88개 항공사가 이용하는 국제 수위의 인천국제공항. 56개국 183개 도시를 취항하고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9위의 대형 공항이다. 연간 3,897만명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만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전체 부지는 5,606만 제평방미터에 달한다. 24시간 전 세계 비행기와 사람들이 오가는 곳으로 그만큼 전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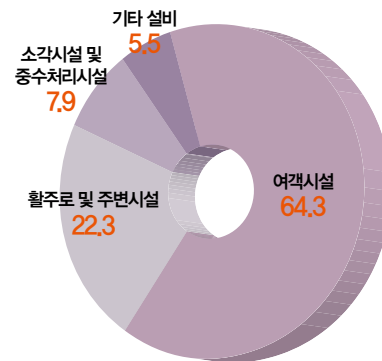
공항에서 쓰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다. 전력은 대부분 공항 건물과 시설운영에 사용된다.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전기 사용량은 연간 2,222테라줄(TJ)이다. 석유로 환산하면 5만3,328톤에 달하는 에너지다.

인천국제공항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항 전기를 2.85퍼센트(2011년 기준, 직전 해 대비) 줄였다. 이를 통해 절감한 전력 비용은 25억원이다.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운전관리를 강화, 공정개선 등에 들어간 비용은 약 32억원이다. 32억원을 투자해 1년 만에 25억원을 번 셈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전기 쓰는 방식을 바꿔서 절전에 성공했다.

절전을 위해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고효율 LED 조명이다. 일반 조명을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한 것이다. 2010년 이전부터 시행된 교체사업은 2015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조명설비의 65퍼센트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교체비율은 33.2퍼센트다. 올해까지 전등 5만3,600여 개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조명 교체에 따른 정부지원금 7억3,500만원을 받아 예산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설비의 효율을 높인 것도 절전에 주효했다. 공항공사는 고효율 터보냉동기 4대 교체, 고효율 펌프·인버터 적용, 고효율 변압기 사용 등 노후화돼 전력 사용에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를 재빨리 교체했다. 또 계류장에 켜는 항공등화 등 야간에 사용하는 조명을 태양전지식으로 개발해 설치했다. 지하차도 배풍기의 운영시간도 조정해 필요 없이 모터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 인천국제공항 전력 사용량 비중 (단위 : %)

### 절전 방법

| 구분 | 내용 |
| --- | --- |
| LED |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 실내온도 | 공항청사와 터미널 실내온도 이원화<br>– 청사온도 : 여름철 28℃ 이상, 겨울철 18℃ 이하<br>– 여객터미널·탑승동 : 여름철 25℃ 이상, 겨울철 20℃ 이하 |
| 설비 | 설비효율 극대화<br>– 고효율 터보냉동기 4대 교체, 고효율 펌프·인버터 적용, 고효율 변압기 사용<br>– 야간 조명 태양전지식으로 교체 |

### 항공수요 11퍼센트 늘었지만 온실가스 1.3퍼센트 줄여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수요가 전년 대비 11퍼센트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퍼센트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까지 이뤘다.

공항공사는 절전을 경영 시스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전기를 절약하는 것 자체가 경영상의 주요 지침이다. 에너지 절약이 경영성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2009년 12월 에너지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경영 매뉴얼과 절차서를 만들었다. 한국산업표준에 맞춘 에너지 경영 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7일 세계 공항 중 건물 분야 처음으로 국제표준인 ISO50001 인증을 취득했다. 에너지 절감을 공항운영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는 의미다.

경영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 제품을 공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배치하고 있다. 고효율인증제품이나 에너지 소비효율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서 쓰게 만든 것이다. 현재 공항에 대기전력저감장치를 단 사무기기 비율은 전체의 83퍼센트에 달한다. 인천공항은 사무실 전산기기의 대기전력저감제품 구매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를 덜 쓰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공항 자체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확대해 전체 사용 에너지의 10퍼센트를 넘기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 공항 부지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인재개발원, 중수처리장, 공항진입로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09년에는 중수처리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100킬로와트와 풍력발전기 10킬로와트 용량 5기를 설치했다. 또 공항 진입로에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47기를 설치했다.

전력을 넘어 인천공항의 전체 에너지 수요량은 석유로 환산할 경우 연 3만4,595톤(toe·석유환산톤)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이 절감한 에너지는 1만3,613toe로 절감률은 39.4퍼센트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7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비행기 5대를 보유한 한 저가 항공사가 이 금액에 팔렸다. G

글·박상주 기자

### 하절기 에너지·온실가스 줄이기 5대 실천수칙

**1 쿨맵시로 냉방 온도 2℃ 높이기 (여름철 냉방 온도는 26~28℃로 유지)**
▷ 노타이, 반팔셔츠 착용으로 냉방을 2도 높이면 연간 197만 톤의 $CO_2$가 줄어듭니다.
※ 노타이, 반팔셔츠 등은 체온을 2℃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

**2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대기전력은 가전제품 이용전력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3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 프로그램 이용하기**
▷ 1대당 연간 전력 144kWh, $CO_2$ 65kg 감축, 1만7천원이 절약됩니다.

**4 점심시간에 조명과 냉방기 끄기**
▷ 하루 1시간 형광등을 15개 끄면 연간 약 74kg의 $CO_2$가 줄어듭니다.

**5 실내 전등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고, 한등 끄기**
▷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바꾸면 연간 15kg의 $CO_2$가 줄어듭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박기범 주무관(왼쪽)이 홍성진씨에게 선박원부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1박2일 걸리던 선박 민원, 10분이면 끝

## 등록부터 말소까지 일괄처리… 비용 크게 줄어 주민들 호평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의 현장을 뛰며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만으로도 민원인들은 큰 희망을 갖게 된다.

"한참 바쁜 농번기에 동해시까지 가지 않고도 선박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홍성진(54)씨는 "선박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내륙에 호수와 하천이 많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290척의 선박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척이 화천과 춘천, 양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화천군 주민들은 선박등록 등 선박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동해시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선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동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박 2일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다. 실수로 서류를 빠뜨리기라도 하면 다음 주 다시 가져와야 해 이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이후 선박말소 등 일부 업무는 10분 만에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홍씨는 "선박 관련 민원의 경우 날짜도 제때 맞춰야 하고 절차도 간단치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고충이 컸다"며 "선박 톤수 측정부터 등록까지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박민원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화천 파라호 선착장 인근 구만리의 경우 화천수력발전소 건설로 토지가 수몰되면서 주민들은 호수 건너 다람쥐섬 등으로 배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선(農船)을 소유한 주민들도 늘었다. 현행법에 따라 선박 총톤수를 측정하고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원거리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뜻 나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 시간·비용 절감에 주민 호응…선원이동민원실도 운영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관련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강원 내륙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 총톤수 측정과 선박등록, 선박원부 변경등록, 선박말소등록 등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선박 이용이 적은 농한기를 이용해 1년에 2차례 실시하다 호응이 좋아 4차례로 늘렸다. 선박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직접 찾아갔고, 당일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직원들이 동해에서 처리한 뒤 우편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기까지 했다.

이날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박기범 주무관이 섬마을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도선(渡船)을 소유한 홍씨가 화천군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상담하고 있었다. 박 주무관은 선박원부 변경신청서 양식을 꺼내 보여주며 기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

홍씨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농선을 가리키며 선착장으로 인도했다. 박 주무관은 추후 등록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며 2분기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때 나머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운영 중인 선박이동민원실에서 선박을 소유한 농민들이 안내에 따라 선박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박 주무관은 "농선을 소유한 산간오지 마을 사람들은 등록 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 선박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며 "미등록 선박은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등록한 선박은 침몰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곧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민원 처리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다니며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이동민원실 서비스에 고마워할 때 그들의 손발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날도 오전 7시 반에 동해에서 출발했지만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실제 선박 톤수를 측정하려면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선박이동민원실을 통해 처리하면 단돈 5,750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흡족해 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선박이동민원실은 강원도 두메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민원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선박이동민원실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다.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였다. 이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읍과 고성군 등에서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기범 주무관은 "선박이동민원실의 이용 건수는 매년 48퍼센트나 늘어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선박등록 등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코리아(www.korea.kr) 제공

# “오늘은 조종사, 다음엔 소방관 할거야!”

## 다양한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오픈 1년 만에 방문객 100만명 돌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현장을 체험하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 내 청소년체험관의 우주센터다.

동네에서 흔히 보는 은행, 자동차 정비소, 슈퍼마켓,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할까? 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종합병원, 경호회사, 여행사, 증권회사, 무역회사 직원들은 또 어떨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직업현장 체험을 실제 해보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방문객 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열었다. 6월 12일 현재 105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다.

8만 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연면적 3만7,800평방미터)로 지어진 한국잡월드는 국내 최대 최첨단 직업 전시·체험시설이다. 어린이·청소년체험관과 진로설계관, 직업세계관 등으로 이뤄진 한국잡월드의 하루 이용 가능 인원은 3,800명(어린이체험관 1,450명, 청소년체험관 2,350명)이다.

어린이직업체험관에서는 37개 체험실에서 44개의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직업체험관에서는 41개 체험실을 통해 65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체험관은 항공기 조종실, 종합병원 수술실, 우주센터, 패션쇼장 등 실제 직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심층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유치원생~고등학생 단계별 진로 체험·설계 기회

직업세계관은 직업의 역사와 미래직업, 첨단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관으로, 4D 영상관과 꿈을 실현한 직업인 소개 및 세상의 숨은 일꾼 코너 등이 있다. 진로설계관은 놀이형으로 진행하는 ‘홀랜드 직업흥미 검사’와 가드너 이론에 근거한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알아보는 곳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나래울극장(354석), 한울강당(210석), 소극장(50석) 등 공연·문화시설과 함께 직업정보열람실, 유아놀이방, 의무실, 잡카페, 푸드코트, 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나들이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한국잡월드의 홍경자 홍보팀장은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평균 3천명가량”이라며 ‘한국잡월드 알차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체험관 이용에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연령대(만 9세까지)인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면 어린이체험관 전용 화폐 ‘조이’를 활용,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익히고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유도해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진로설계관에서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추천 직업을 체험해보도록 한다.

중학생이라면 자신의 직업흥미와 재능에 대해 확인해보고, 관련 직업 체험 및 정보를 찾아보면서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대해 보다 가까이 접근해간다.

고등학생이라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직업 체험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 체험하면서 해당 직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내 자연스럽게 학습과 연계해나간다.

어린이·청소년체험관 이용을 위해서는 예약(인터넷으로만 접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일 현장에서는 예약 외 남은 분량의 이용권만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한국잡월드는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한국잡월드

1 어린이체험관의 공룡센터. 어린이들이 화석발굴을 체험 중이다.
2 방송센터에서 방송인이 된 듯한 경험을 하는 어린이들.
3 치과의사란 이런 것이구나! 치과체험.
4 진짜 소방관이 된 듯 소방훈련을 하는 어린이들.

### 한국잡월드 이용 안내

| 시설명 | 이용 시간 | 입장료 |
|---|---|---|
| 어린이체험관 (만 4~10세 대상) | 1부 :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br>2부 :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 평일 1만6천원, 주말·공휴일 1만8천원. (1부 또는 2부 입장료) |
| 청소년체험관 (만 11~18세 대상) |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각 60분씩 5회 | 평일 8천원, 주말 9천원. (1회 체험) |
| 진로설계관 | 오전 9시~오후 6시 | 체험관 이용 시 무료 이용. 별도 이용 시 어린이·청소년 3천원, 성인 4천원. |
| 직업세계관 | | |

**문의** ☎ 1644–1333
**입장권 예약** www.koreajobworld.or.kr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정자동)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여자 킥복싱 국가대표 박혜영(붉은 유니폼), 김도연(푸른 유니폼) 선수가 6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포인트파이팅' 경기 시연을 하고 있다.

# "정말 재미있어요! 인천으로 구경 오세요~"

## 대회 개막 보름 앞두고 서울 올림픽공원서 성공개최 기원 행사

상하 도복을 입고 머리에는 헤드기어를, 손에는 글러브를 낀 여자 킥복싱 국가대표 박혜영(서울 은평), 김도연(경북 구미) 선수가 무대에 올랐다. 두 선수가 서로 상대의 얼굴, 몸통을 향해 주먹이나 발을 내지를 때마다 3명의 심판이 점수를 매겼다.

6월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펼쳐진 킥복싱 '포인트파이팅' 시연이다. 이 시연은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 올림픽의 날 행사 중 펼쳐진 이벤트다. 전 세계인들이 매년 올림픽 정신을 기리는 올림픽의 날을 맞아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실제 경기를 시연한 것이다.

6월 29일 개막해 8일 동안 펼쳐지는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는 킥복싱을 포함해 당구, 볼링, 체스·바둑&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카바디, 킥복싱&무에이, 크라쉬, 25미터 쇼트코스수영의 9개 이벤트(12개 종목)가 열려 43개국 선수 1,700여 명이 출전한다. 인천에서 선보일 경기들은 비록 올림픽 경기 종목들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들이다.

**선입견 깨는 재미 솔솔 킥복싱** 흔히 '발로도 공격하는 복싱' 정도로 알고 있는 킥복싱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포인트파이팅' 시연에서 보듯 경기 장소와 복장이 세부종목에 따라 다르다.

이번 대회에서 선보일 킥복싱은 매트 위에서 진행되는 '포인트파이팅', 링 위에서 펼쳐지는 '풀컨텍'과 '로우킥' 등 3개의 세부종목 경기가 열린다. 도복을 입는 포인트파이팅과 달리 풀컨텍, 로우킥은 상의를 벗고(여성은 브라톱 착용) 지속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기로 더욱 땀내 물씬 풍기는 승부가 펼쳐진다.

킥복싱에 이어진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장세진 · 이해인 커플의 자이브 시연.

**가장 많은 선수 출전, 금메달은 단 2개인 풋살** 이번 대회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400명의 선수가 출전하지만 가장 메달이 적은 종목은 금메달 2개(남녀 단체전 각각 1개)인 풋살이다. 일종의 '미니축구'인 풋살은 수시로 선수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축구와 다르다. 실내카바디 역시 금메달 2개(남녀 단체전 각 1개)로 최소 금메달 종목이지만 출전 선수가 100여 명으로 풋살 다음이다. 고대 인도의 병법에 기원을 둔 실내카바디는 격투기와 술래잡기를 결합한 듯한 경기다.

**금메달 가장 많은 25미터 쇼트코스수영** 25미터 쇼트코스수영은 25미터 수영장 스타트대에서 출발하여 50미터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4가지 영법 중 한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빠르게 돌아오는 스포츠이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개인혼영, 계영, 혼계영 등 남녀 각각 15개의 종목 경기를 치러 모두 30개의 금메달이 달려 있다. 다음으로 금메달이 많은 종목이 댄스스포츠, 당구로 이들 종목의 금메달 수는 각각 10개다.

**남녀 함께 출전하는 e-스포츠, 댄스스포츠** 6개의 금메달이 걸린 e-스포츠는 이번 대회 경기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구분이 없는 종목. ▶스타크래프트 II : 자유의 날개와 그 확장팩 ▶스페셜포스 ▶리그오브레전드 ▶철권 태그2 ▶피파 13 ▶니드포스피트 : 시프트 2 언리쉬드 등 6개 세부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댄스스포츠에서는 남녀 커플 선수들이 왈츠, 탱고, 슬로우 폭스트롯, 퀵스텝, 비엔나왈츠(이상 스탠더드), 삼바, 차차차, 파소도블레, 자이브, 룸바(이상 라틴댄스) 등 모두 10개 세부종목에서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춤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

**전통 무술에 뿌리 둔 '무에이' '크라쉬'** 우리나라에 흔히 무에타이(무에이+타이)로 알려진 '무에이'는 태국의 전통 무술이다. '무에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부터 소개됐다. 이번 대회에 모두 9개의 금메달(남자 6, 여자 3)이 걸려 있다. '크라쉬'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고대 스포츠로 유도와 비슷하다. 유도는 누워서도 기술이 들어가는 반면 '크라쉬'는 서서 경기를 한다. 8개의 금메달(남자 5, 여자 3)을 놓고 겨룬다.

**취미가 경기로 당구·볼링·체스·바둑** 취미를 갈고 닦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다. 대중적으로 보급된 당구와 볼링은 각각 10개(남자 7, 여자 3), 6개(남녀 각각 3)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서양장기'라고 알려졌으나 사실 아시아에서 유래된 체스의 금메달은 4개(남자 3, 여자 1)다. 한국, 중국, 일본이 최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바둑 역시 4개의 금메달(남자 3, 여자 1)을 두고 삼국이 승부를 펼친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오상민 기자

###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요

**일시** : 6월 29일~7월 6일(풋살은 26일 경기 시작)
**장소** :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등 9개 경기장
**종목** : 당구, 볼링, 체스·바둑&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카바디, 킥복싱&무에이, 크라쉬,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등 9개 이벤트(12개 종목)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3개국 선수 1,700여명, 임원 700여명

### 대회 입장권 인천 시내 판매 시작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는 6월 23일까지 인천 시내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입장권 판매소를 설치하고 판매 중이다. 인천버스터미널 내 관광안내소에 상설 판매소를 마련해 현장 판매를 시작했으며 SK 홈경기가 열리는 문학야구장(6월 18~23일)에서도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입장권을 판매한다.

입장권 가격은 개·폐막식 1등석 20만원, 2등석 10만원, 3등석 5만원이며 종목별로는 ▶댄스스포츠 1등석 3만원, 2등석 1만원 ▶e스포츠 1만원 ▶무에이, 킥복싱 7천원 ▶풋살, 실내카바디, 크라쉬 5천원이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대회기간 중 강화군 11개 유적과 전시관, 인천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이민사박물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현대해양레저 5개 노선 승선권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고 현대유람선, 월미테마파크, 인스파월드, 월미도 비너스유람선 등도 할인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입장숙박부 입장권팀 ☎ 032-458-2675
**인터넷 예매 사이트** www.okticket.com

일본 작품 회화 부문, '사자와 신기한 친구들', 나카조노신(지적장애)

# 꿋꿋한 붓, 꿋꿋한 삶

##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 편견 없는 작품 160점 선봬

"몸이 불편한 화가들은 활동에 제약이 많다 보니 다른 화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활동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외국 화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앓게 된 구필화가 송진현(45)씨는 3년째 그와 같이 장애를 가진 중국과 일본의 화가들과 교류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입으로 그림을 그려온 그는 2년 전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의 한국 대표 작가로 선정된 이후 줄곧 이 전시회에 참여해오고 있다. 그는 "혼자만의 작업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내 작품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최하는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이 올해 3년째를 맞았다. 2011년 장애예술인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시작된 교류전은 해마다 한국, 중국, 일본 장애미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작품 서양화 부문, '한국적 정물', 송진현(지체1급)

중국 작품 회화 부문, '아주 아름다운 향(春暉图)', 리양(지체장애)

'마음을 열고 다가서다, Serendipity'라는 부제로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송진현 작가의 그림을 비롯한 국내 미술가들의 작품 131점과 중국 작품 20점, 일본 작품 9점 등 총 160점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한 사연을 지닌 작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세상을 향한 저마다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성 넘치는 작품에서 장애를 한계로 여기지 않는 이들의 꿈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 장애 딛고 희망 그려낸 한·중·일 미술가들

중국 작가 리양은 목련을 소재로 한국과 중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작품을 완성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컴퓨터를 이용해 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는 헤이룽장대학교 예술디자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현재 중국 장애인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일본 작가 나카조노신은 사자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빈번히 일어나는 '왕따 현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싶지만 다른 동물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탓에 그러지 못하는 사자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우리의 편견과 행동을 일깨운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외침을 작품 속에 간접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지적장애를 지닌 또 다른 일본 작가 톳군은 검은색을 좋아하는 작가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의 제목 역시 '검게 칠하라!'이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검은색 크레용인데, 그는 한번 크레용을 잡으면 고민하지 않고 하얀 도화지를 채워나간다. 톳군은 작품 속 여백의 의미를 "나의 작품은 멈춘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던 이번 전시회에는 재미있는 볼거리와 행사 순서도 마련됐다. 14일 개막식의 식전 순서로 아리랑선교단이 해금연주를 선보였고, 개막 행사로는 진도북춤, 아리랑, 사물놀이 등 우리 가락으로 구성된 음악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장애인미술가들을 향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함께하는 우리, 희망을 그려내다'라는 주제의 관람객 참여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서울전시회에 이어 오는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치치하얼에서는 '제3회 중·한·일 장애인미술교류전'이 열릴 예정이다.

글·백승아 기자 / 사진·한국장애인미술협회

# “아들 잃은 엄마가 오열하는 장면 그걸 찍으려 10년을 버텼다”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춘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 전 사건 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다. 그리고 며칠 뒤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유괴사건이 다시 일어난다. 〈몽타주〉는 눈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15년 전 범인을 찾아 헤매는 엄마, 15년간의 미제 사건에 인생을 건 형사의 이야기다. 정근섭 감독은 엄마의 오열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울림을 필름에 담았다.

중앙포토

경력이라곤 2000년 〈공포택시〉, 2001년 〈달마야 놀자〉 조연출이 전부지만 정근섭 감독은 〈몽타주〉에서 10년간 혼자 쌓은 내공을 제대로 보여줬다.

〈몽타주〉는 정근섭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 영화다.

“2010년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공소시효 문제로 사회가 정말 시끄러울 때였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 잃은 엄마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됐다. 처음엔 단편으로 썼다가 몇몇 장면들의 규모가 커서 장편으로 바꿨다.”

‘아이 잃은 엄마’라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정해지면서 캐스팅도 자연스럽게 결정됐다. 엄정화가 이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인 것. 그는 〈오로라공주〉 〈베스트셀러〉 등 공포, 스릴러 장르에 단련돼 있었고, 두 영화에서 절박한 모성애를 선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말 쉬운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야 했으니까. 나도, 정화씨도 아이가 없어서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 한 스태프의 목격담을 듣고 엄정화씨에게 전해줬다.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직접 본 얘기였다. 슬픔이며 노여움이란 감정이 끼어들 겨를도 없는, 모든 것이 하얘진 듯한 사람의 표정이었다고 한다. 달려오자마자 아이의 상처 입은 얼굴을 티셔츠로 가리더란 얘기가 가슴이 아팠다. 자식의 상한 모습을 내보이기 싫은 어미의 마음이었겠지. 다행히 엄정화씨가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해줬다.”

소위 타입캐스트(배우에게 유형이 고정된 배역을 맡기는 것)의 전형인 셈이다. 극중 형사 역으로 등장하는 김상경 역시 〈살인의 추억〉(2003)에서 형사 역을 훌륭하게 소화한 경험이 있는 배우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 김상경의 이미지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다.

“김상경씨에게는 ‘강한 남자’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맡아온 캐릭터가 젠틀한 편에 가까웠다면, 좀 더 거칠고 바닥에서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다. 나중에는 삭발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캐릭터에 몰입하더라. 물론, 말렸다(웃음).”

마인제이스

엄정화는 이번 영화에서도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잘 풀어냈다.

〈몽타주〉는 시간차를 유연하게 활용한 영화다. 15년 전 발생했던 유괴사건과 현재의 유괴사건, 그리고 하경(엄정화)이 범인을 찾아나서는 이야기를 마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것처럼 구성해 시간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몽타주〉 이전에 준비하던 작품이 투자까지 갔다가 엎어졌는데 그 시나리오가 시간을 다루는 영화였다. 그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훈련이 됐는지 이번에는 괜찮았다(웃음). 사실 그런 구성이 관객에게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럴 때마다 〈메멘토〉(2000)를 봤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인데도 흥행이 됐다. 비슷한 구성의 〈바벨〉(2006)도 나름의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그만큼 정 감독은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에 확신이 있었다. 〈몽타주〉는 관객에게 게임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 영화기도 하다. 극의 흐름에서 반전을 눈치챌 수 있는 장치가 눈에 띈다. 영화 전반부에서 하경은 청호(김상경)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데, 중반부에 그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사건의 복선을 암시한다.

### “캐릭터 자체로 울림 주는 본격 스릴러 만들고 싶다”

“아예 힌트를 안 주면 그건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다. 살짝 힌트를 줄 때 지적 유희를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장치들 때문에 관객들이 반전을 미리 눈치챌 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나도 걱정은 됐지만 시사회 때 반응이 좋아서 마음을 놨다. 반전을 미리 알더라도 나중에 퍼즐을 맞춰가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정 감독이 〈몽타주〉를 연출하기까지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래도 그는 그 시기를 좌절의 세월로 기억하지 않는다.

“영화계가 힘들어졌을 때 이 바닥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대리기사로 아르바이트 뛰는 친구들이 많아서, 술 먹으면 대리운전 부르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나도 〈달마야 놀자〉 끝나고 5년 정도 준비했던 작품이 엎어지고, 영화 외적인 것들로 고생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아는 사람 회사에서 잠깐 일하기도 하고. 그래도 시나리오 계약은 꾸준히 했다. 영화화가 안 돼서 그렇지(웃음).”

그 1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데는 한 장면에 대한 욕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몽타주〉를 놓지 않았던 건, 하경이 오열하는 신 그거 하나다. 그 장면을 꼭 연출해서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는 그 욕망 하나로 긴 세월을 버텼다.”

이 장면은 정근섭 감독이 가장 공들인 장면이면서 엄정화에게 가장 어려운 장면이기도 했다.

“하경이 죽은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신은 촬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장면이었다. 차에서 내린 하경은 그 상황을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천천히 걷다가 아이의 신발이 발에 걸리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부정해왔던 사실이 한번에 무너지는 거지. 한 장면에 두 개의 감정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다. 다행히 엄정화씨가 한 번에 해냈다.”

〈몽타주〉는 무거운 이야기를 힘 있게 끌고 가는 감독의 집요한 근성이 빛을 발하는 영화다. 탄탄한 서사, 배우들의 호연은 영화에 탄력을 더했다.

“플롯도 중요하지만, 캐릭터로 움직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 캐릭터, 그 사람 자체가 울림을 줄 수 있는 영화. 더 본격적인 스릴러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차기작은 사극을 구상 중이다.” G

글·지용진(중앙일보 매거진 M 기자)

교육현장 체험 〈B끕 언어〉 펴낸 권희린 교사

# “비속어 뜻을 알려주니까 애들이 스스로 절제하네요”

“선생님, 저희 반에서 매일 5분 동안 욕 안하기 캠페인 시작했어요!”

서울 장충고등학교에서 6년째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권희린(30) 교사는 교직생활 중 가장 뿌듯했던 때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지난해 한 남학생이 건넨 소식을 접한 순간을 떠올린다. 온갖 비속어를 자연스럽게, 걸쭉하게 사용하는 남학생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권 교사는 그때 아이들 스스로도 충분히 절제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서로에게 비속어를 내뱉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비속어의 어원을 자세히 안 이후에는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권 교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시간의 일부를 떼어 학생들에게 비속어를 가르쳤다. 단순히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채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왜 비속어를 쓰면 안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애들아, ‘좆같다’의 의미를 알고 있니?” 젊은 여자 선생님이, 그것도 국어 선생님이 자신들의 언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내뱉는 모습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히려 당황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속어 쓰기를 자처하는 선생님의 노고(?)에 학생들의 마음이 열렸고 이내 관심이 집중됐다. 어떤 경우에는 제법 진지한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좆같다’의 어원에 대해 들은 한 학생이 “좆같다 대신 꽃같다를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권희린 장충고등학교 교사는 “비속어의 어원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거친 남학생들의 언어생활 순화에 도움을 준 비속어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비속어의 의미와 어원 등을 담은 책 〈B끕 언어〉(네시간)를 출간했다. ‘띠껍다’ ‘뻘쭘하다’ 등 일상 속에서 비속어인 줄 모르고 흔히 사용하는 70여 개의 단어들을 꼽아 의미를 파헤치고, 이들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흥미롭게 다뤘다. 단순한 ‘비속어 사전’이라기보다 유쾌한 ‘체험형 교과서’에 더 가깝다.

책을 준비하면서 그는 비속어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국어 교사인 자신도 비속어인 줄 모르고 쉽게 사용했던 단어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도 더러 있었다. 가령 ‘빼도 박도 못하다’라는 표현은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서 비롯된 비속어다.

그는 〈B끕 언어〉가 비속어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일반 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비속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중 ‘비속어는 MSG다’라는 정의가 참 와 닿아요. 사용할 때는 감칠맛이 나지만 영양가는 없지요. 독자들이 누군가의 강요를 듣지 않고도 스스로 무분별한 비속어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카타르시스도 느껴야겠지만요.” G

글·백승아 기자 / 사진·김현동 기자

부산 초량이바구길

# 꼬불꼬불한 골목, 가파른 계단 박제가 되길 거부한 시간의 흔적들

30계단후 김민부 전망대

초량이바구길 Story the way Kimminbu View Point 김민부 전망대

부산 동구의 초량이바구길을 걸으며 타임머신 여행을 한다. 사람 하나하나 저마다의 시간과 공간, 눈물과 기쁨으로 이뤄낸 미로 같기만 한 우여곡절의 길들에서 애잔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들을 읽는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 나무 우거진 숲길, 산길이 있고 강 따라 흐르고 바다를 벗 삼은 강변길, 해변길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길들 너머로 사람 살아가는 마을길이 있다. 숲길·산길·강변길·해변길을 걸을 땐 자연이 보내준 대가 없는 선물에 감탄하며 걷겠지만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마을길은 또 다른 감상을 준다.

초량이바구길은 부산역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바로 시작된다. 부산역과 부산항이 있어 부산의 중심, 부산의 종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다. 차이나타운을 옆에 끼고 초량동의 구불구불, 오르락내리락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골목길들을 숱한 이야기로 엮어낸다. '이바구'란 '이야기'의 부산 사투리. 이바구길은 부산 사람들이 그 길에서 겪어낸 시대와 세월의 아프고 즐겁고 기쁘고 힘겹던 이야기를 길 따라 풍경 따라 조심조심 풀어낸다.

초량이바구길은 일제시대 부산항 개항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방 후 피난민의 생활터로서의 1950~60년대, 산업이 일어서는 1970~80년대의 굴곡진 역사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길이다. 시계가 멈추지 않는 이유로 파란만장했던 우리네 근현대사의 흔적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언뜻언뜻 모습을 드러낸다.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이끄는 힘 없이도 저 스스로 그렇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묻어나는 향수

박제처럼, 그저 지나간 시간 속이 앨범이나 추억으로 그치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사람들로 인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눅진한 삶의 이야기들이다. 1.5킬로미터의 길지 않은 길이건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15킬로미터, 150킬로미터보다 더 길고 끈끈하다.

번잡한 부산역을 벗어나 이바구길로 들어서면서 바로 초량동의 옛이야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1922년 일제 때 부산 최초의 근대병원으로 쓰였던 백제병원 건물부터 부산 최초의 창고로 쓰였던 남선창고터,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라는 초량교회까지 최초라는 수식어는 이 길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다.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선 구 백제병원이나 아쉽게도 현대의 자본 논리에 밀려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터와 담장을 남겨 지난 세월을 굽어보고 있는 남선창고터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간간이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부산 사람치고 남선창고 명태 눈깔 안 빼먹은 사람 없다."

북쪽에서 오는 신선한 명태를 보관하는 등 당시 부산의 생선창고로 활약했던 탓에 명태고방이라고도 불렸던 남선창고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여전히 옛시절을 기억한다. 과거로 묻혔던 이야기는 남선창고터를 찾은 객으로 인해 다시 부활한다. 이야기에는 이토록 힘이 있다. 과거도 되살리고 추억도 끄집어낸다. 자꾸만 자꾸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마을은 비단 현재에만 존재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들을 만나고 그때 그 시절을 되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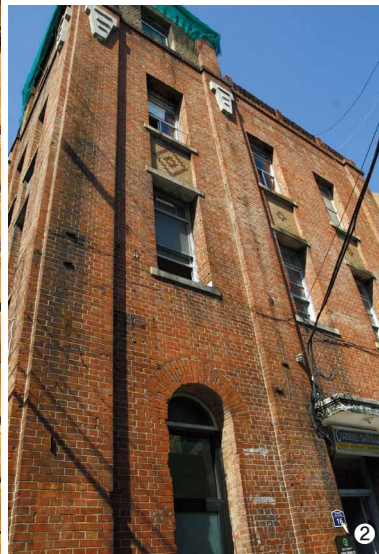
조금 더 걸어가면 동네 벽에 설치한 담장 갤러리와 동구 인물사 담장을 만난다. 그 시절을 살았던 어른들에겐 골목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그 시절을 모르는 젊은이들이나 외지인에겐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옛이야기 들려주는 장소다.

"여기 요 이쁜 아가씨가 나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장난삼아 던진 말은 아주 농담만은 아니다. 스물두 살에 이곳으로 시집와 여든여섯이 된 지금까지 이곳에서 여전히 온몸으로 삶을 사는 이말남(86) 할머니의 주름진 웃음 속에서 희노애락의 세월을 짐작한다.

패널에 붙은 사진과 시를 보며 어렴풋이 그 시절 골목의 정서를 상상해본다. 더불어 역사 속에 나고 진 사람들의 자취를 더듬는 일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시공간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재생한다. 초량초등학교와 초량교회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학교이자 교회다. 세월을 잇는 징검다리이면서 여전히 생활의 중심에 들어앉아 있다. 현재를 걸으며 과거를 만나고 과거를 바라보다가도 문득 현재를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사람 사는 골목을 걷는 맛이자 묘미다.

"여기 요 이쁜 아가씨가 나다" 골목 담장에 걸린 50년대 사진을 보며 농담하시는 동네 할머니.

1 해방 직후 초량동은 언덕배기에 아슬하게 지어진 판자집 일색이었다.
2 자본의 논리에 밀려 지금은 담장만 남아있는 남선창고 터.

1 골목 담장에 그려진 동구의 인물 사진들을 보며 회상에 잠긴 동네 아저씨.
2 빨간 벽돌의 고풍스러운 옛 백제병원 건물.
3 유치환 우체통에서 편지를 보내면 6개월 후에 배달해준다.

길은 고불고불 골목을 헤매며 아기자기한 길을 내다가도 문득 가파른 계단을 내놓기도 한다. 168계단 앞에서 문득 다리가 후들린다. 나는 마실삼아 놀러온 길이라지만 이 길을 밤낮으로 오갔을 사람들에게는 이 계단 역시 생활의 부분이었을 게다. 누군가는 물지게를 지고 날랐을 계단, 누군가는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렸을 계단, 누군가는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고사리손발 오므리고 다녔을 계단, 그 계단을 오르며 그 계단을 오르내렸을 사람들을 생각한다.

계단은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듯 한 번에 오르기엔 힘에 부친다. 다행히 몇 계단 오르지 않아 카페테리아를 갖춘 아담한 전망대가 발길을 쉬게 한다. 김민부전망대는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가인 김민부 시인의 이름을 따 지었다. 그 시절 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장소다. 확 트인 시야가 마음마저 훤하게 터준다.

동구와 중구, 남구 일대는 물론 부산역과 부산항, 공사 중인 북항대교와 영도까지 시원하게 내다보인다. 부산에 와서 이곳을 지나친다면 영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썩 훌륭한 전망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파란 바다와 그에 맞닿은 하늘이 주는 청량감,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하고 기분을 들뜨게 한다. 혼자만의 사색을 위한 곳으로도,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없다.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다시 길을 나선다. 김민부전망대를 둘러가면 168계단도 금세다. 계단을 올라 마을의 당산을 지나 이바구공작소에 잠시 멈춘다. 이곳 역시 해방부터 6·25전쟁을 거쳐 월남 파병의 역사를 간직한 산복도로의 이야기를 그림과 사진, 전시 등을 통해 풀어낸다. 산의 배를 둘러 길을 낸 산복도로에서 사연 많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숨 쉬어 가기도, 이바구길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좋은 곳이다.

### "닭 두 마리를 처방하라" 장기려 박사의 일화 생생

공작소를 지나면 이내 장기려 박사를 기념하고 박사의 뜻을 십분 살려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들인 '더 나눔' 기념관을 만난다. 국내 의료보험의 시초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장기려 박사의 헌신적인 생애에 관한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못살던 시절 약 대신 "닭 두 마리를 처방하라"는 이야기는 요즘같이 팍팍한 시절에 마음을 울리는 유명한 일화다. 기념관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운동 프로그램, 검진시스템, 작은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부산역을 오가는 333번 버스가 다니는 망양로에 있는 '유치환의 우체통'은 부산 동구에서 살고 진 유치환 시인을 기려 만들어졌다. 바다가 바라다보이는 카페에서 차 한잔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엽서나 편지를 써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후에 배달해준다. 혼자 온 여행자라면 나 자신에게 편지 한 통 써보는 일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테다.

큰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곧 까꼬막 게스트하우스다. 언덕배기에 있어 까꼬막이다. 까꼬막이라 전망도 좋다. 복층의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빌려쓸 수 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2층 방에서 바라본 부산은 언뜻 그리스 산토리니를 닮은 것도 같고 이탈리아의 친퀘테레나 아말피 해안을 떠올리게도 한다. 밤이 되자 왠지 이국적인 바닷가 마을,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며 부산에서의 시간여행을 지는 해를 얹은 검푸른 바다로 마무리한다. 부산 여행의 낭만 루트 하나를 찾은 즐거움을 안고. G

글과 사진·이송이(여행작가)

### 여행수첩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남부터미널에서 부산서부버스터미널로 간다. 4시간 30분~4시간 50분 가량 소요된다. 동서울터미널에서 타면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가는데 부산역과 거리가 머니 되도록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를 타면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부산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부산 동구청이 설치한 이바구길 안내판을 볼 수 있다. 부산역 건너편 초량지구대 좌측 오르막길에 초량교회와 초량초등학교가 나오는데 담장갤러리를 따라 오르는 길이 이바구길이다.

**까꼬막 게스트하우스** 초량이바구길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는 복층 게스트하우스다. 1층엔 화장실과 거실, 테라스가 있고 2층에 방이 있다. 부산 동구청과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올해 3월에 개관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다. 독채를 빌리는 데 4인 기준으로 5만원이다. 부산역에서 333번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옆으로는 마을카페 '천지빼까리'가 있고 카페 안 마을기업브랜드인 '골목점빵'에서 샴푸, 비누, 소금, 천연조미료 등 마을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수제품도 판다. ☎ 070-7333-9195, 부산 동구 초량6동 망양로 793-467

**신발원** 초량이바구길이 시작되는 부산역 앞에 차이나타운이 있다. 입구의 상해문을 지나면 거리에 다양한 중국식 맛집이 있다. 그중 신발원은 1951년에 생긴 집으로 육즙 가득한 샤오롱빠오 스타일의 찐만두와 월병, 공갈빵 등이 유명하다. 까꼬막 게스트하우스 인근에도 다양한 동네 맛집이 있다. ☎ 051-467-0177, 부산 동구 초량1동 561

# 청포묵 "내가 왜 탕평채?"

세상의 많고 많은 음식 중에 탕평채만큼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진 것이 또 있을까. 음식 이름은 대개 재료명과 요리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탕평채는 그 유래가 사색당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의 영조는 붕당 간의 첨예한 대립과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인재를 고루 평등하게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그 무렵 어느 날 수라상에 나온 청포묵과 갖은 재료들이 섞인 모양새가 탕평을 상징한다 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나온 〈명물기략(名物紀略)〉에는 "사색인(四色人)의 탕평을 기대하여 녹두묵과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음식을 탕평채라 한다"고 했다. 탕평은 〈서경〉에 나오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 무당무편 왕도평평(無黨無偏 王道平平)'이라는 글귀에서 유래한 것으로 싸움이나 시비, 논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을 뜻한다고 한다.

탕평채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의 색은 각 붕당을 상징한다는데, 김의 검은색은 북인을, 미나리의 푸른색은 동인을, 청포묵의 흰색은 서인을, 고기의 붉은색은 남인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낱 묵 요리가 탕평채 같은 예사롭지 않은 칭호를 갖게 된 배경에는 화합에 대한 염원이 있었던 것이다.

영조는 당쟁의 여파로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사도세자다. 탕평을 위해 영조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자리에 각각 다른 당파의 인물을 배치하는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했고 후에는 아예 당색은 불문에 부치고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원칙을 지켰다.

탕평채는 1700년대 말의 문헌인 〈경도잡지(京都雜志)〉와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탕평채라는 이름의 작명자에 대해서는 이설도 있다. 19세기 중반의 〈송남잡지(松南雜識)〉는 훗날 영조 밑에서 좌의정을 지내는 "송인명(宋寅明)이 젊을 때 저자 앞을 지나가면서 골동채 파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사색을 섞는 일을 탕평 사업으로 삼고자 이 나물을 탕평채라 하였다"고 했다.

중앙포토

비슷한 시기의 〈명물기략(名物紀略)〉에는 "정조 때 사색인의 탕평을 바라는 마음에서 갖은 재료를 고루 섞은 묵나물에 탕평채란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주장은 엇갈려도 탕평채라는 명칭이 그 시절의 탕평책에서 비롯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로 짐작된다. 탕평채라는 칭호는 그 후에 나온 〈임원십육지〉 〈동국세시기〉 〈규곤요람〉 등의 문헌에 탄평채(坦平菜), 탕평채방(蕩平菜方), 탕평채 청포(蕩平菜 淸泡), 녹두묵 탄평채(坦平菜), 묵나물, 묵채, 묵청포, 묵초나물 등의 다양한 변형으로 등장한다.

궁중 연회를 기록한 〈진찬의궤(進饌儀軌)〉에는 청포채(淸泡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 이제 탕평채는 웬만한 한식 상에는 빠지지 않고 오를 정도로 흔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며 먹는 사람은 드물다. 모처럼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탕평채를 옛날식으로 함께 해 먹으며 가정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19세기 말의 〈시의전서〉에 나오는 조리법은 다음과 같다. "묵은 가늘게 채치고 숙주와 미나리는 데쳐서 잘라 양념하여 무친다. 쇠고기는 다져서 볶아 넣고 숙육(수육)은 채쳐 넣고 김은 부수어 넣는다. 깨소금, 고춧가루, 기름, 초를 합하여 지령(간장)에 간을 맞춰서 묵과 한데 무쳐 담고, 위에 김을 부숴 얹고 깨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린다." G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 가정을 살리는 비법

글과 그림 · 최영순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처럼 좁은 침대에 누워도 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면 6미터나 되는 넓은 침대일지라도 비좁기만 하다. -탈무드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태화강〉의 주연배우들.

# 철기시대 '반구대 암각화' 깨어나다

## 창작 뮤지컬 〈태화강〉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대서사극의 막이 오른다. 기원전 2세기 철기문명시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 〈태화강〉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대곡리 태화강 지류 암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작품은 이 그림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초청공연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이끈 이 작품은 드라마적 완성도는 물론 음악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 울산시립예술단 120여 명의 단원들과 객원 출연진 30여 명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뮤지컬로, 이들이 만들어내는 36곡의 뮤지컬 넘버는 배우들의 애절한 연기와 어우러져 감동의 선율을 선사한다. 교향악단의 장점을 살린 오케스트라 2관 편성의 라이브 연주와 합창단, 무용단 등 시립예술단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것도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는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총동원된다.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국내 뮤지컬계 실력파 배우 민영기와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배해선, 이정화 등이 각각 비운의 사랑을 겪는 울뫼 역과 미리별 역여울 역, 요화 역을 맡았다. 감초역의 귀재라 불리는 중견 연기자 최주봉과 깊이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는 이문수 등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이번 작품의 대본과 연출은 제23회 전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박용하씨(울산문화예술회관)가 맡았다. 작곡은 한국뮤지컬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강상구씨와 '오랑캐 여자 옹녀' '의성 허준' 등의 작곡과 음악감독으로 신선한 감각을 선보인 유정현씨가 참여했다.

반구대 암각화, 쇠부리, 대숲 등 지역 고유의 문화적 상징을 해양문명과 철기문명의 만남이라는 설정으로 꾸민 〈태화강〉은 관객들에게 독특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G 글·백승아 기자

**기간** 6월 28~29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 02-2280-41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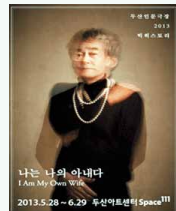
콘서트

### 〈리더스폴 콘서트 2013〉

국내 최정상의 재즈 연주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8천여 명의 재즈팬들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고희안(피아노), 최진배(베이스), 최우준 (기타) 등 6명의 재즈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공연으로, 다양한 매력의 재즈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콘서트에는 지난해 타계한 재즈 피아노의 거장 데이브 브루벡를 추모하며 'Take Five' 등을 선보이는 시간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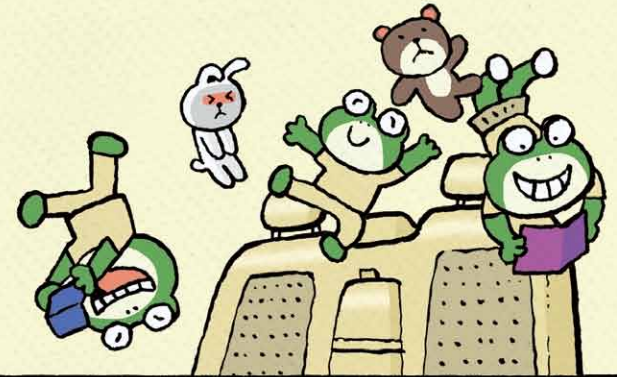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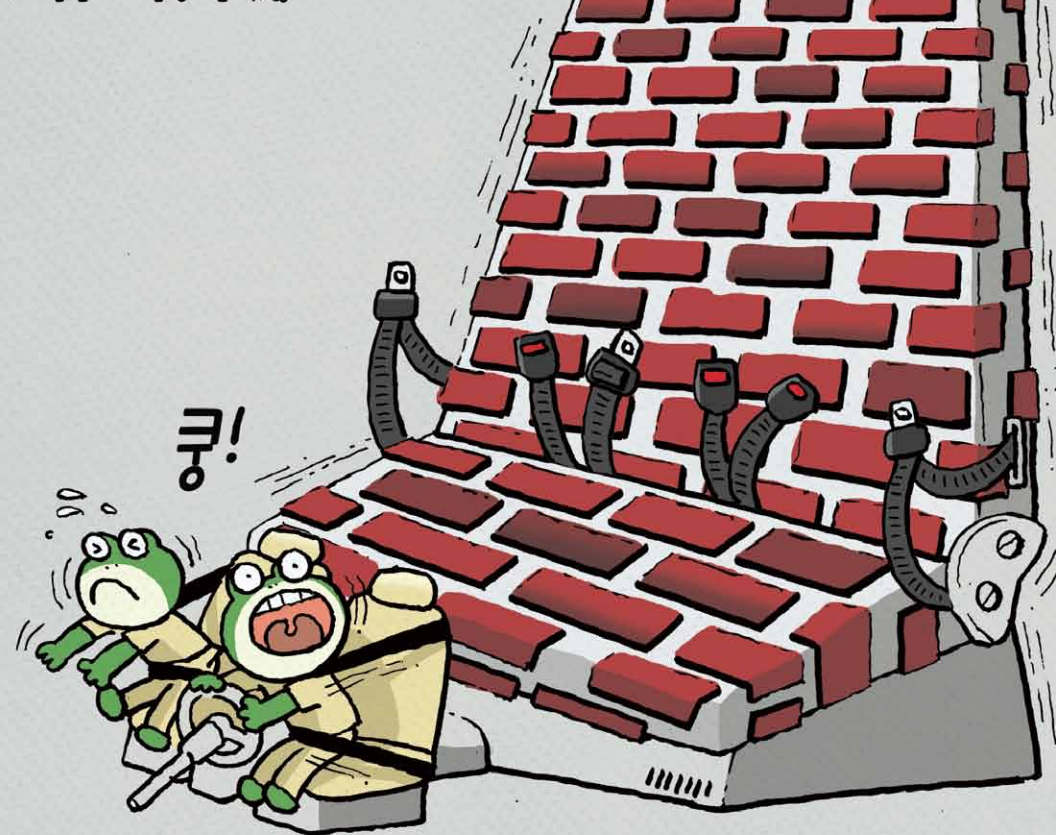
**기간** 6월 21~22일
**장소** LIG아트홀
**문의** ☎ 1544-3922

연극

### 〈나는 나의 아내다〉

'1인 35역'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모노드라마가 국내 관객들을 만난다.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작품으로 여장남자인 샬롯 테 폰 말스도르프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작품은 나치스 치하와 사회주의, 독일 통일 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남성의 삶을 통해 각 시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한다. 35역에는 배우 남명렬과 지현준이 더블 캐스팅됐다. 연출은 극단 '동' 대표인 강량원 연출가가 맡았다.

**기간** 6월 29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문의** ☎ 02-708-5001

# 행복을 지키는 안전벨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안전벨트! 뒷좌석도 꼬~옥 착용합시다!

#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

일러스트 · 강일구

바둑이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지만, 바둑 속에 사람 사는 이치가 깃들어 있다. "이기려고 집착하지 말라"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등 바둑의 여러 격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깨우침을 주는 유용한 격언이다. 그래서 퇴계 선생도 세상에 나선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둑에 비유하여 "혓수를 한 번 두면 전판이 무너진다"고 하여 말과 행동에 신중하도록 깊이 경계했다.

바둑판 위에 돌을 놓을 때처럼 세상일에는 큰 일과 작은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끊임없이 판단해야 한다. 큰 일에 몰두하느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거대한 핵발전소도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추어 서게 된다. 급한 일을 쫓아다니느라 중요한 일을 잊고 있다 보면, 방임했던 자식들이 탈선하거나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

조선왕조는 예절과 의리의 도덕적 질서를 사회적 이상으로 확인하였던 것 같다. 조선 사회가 근본의 도덕만 강조하다가 폐단이 누적되었을 때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였던 선구적 인물이 율곡이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과감한 변혁이 요구되는 경장(更張)의 시대로 인식하고, 현실의 폐단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을 위해 구체적 실무의 긴급함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그는 변혁의 조건으로 '시기적 적합성'(時宜)과 '현실적 효용성'(實功)을 요구하고 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개혁이나 효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개혁은 그 개혁의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회의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이상을 뒷받침하는 현실의 구체적 대책이 없다면, 정밀한 눈금이 없는 멍텅구리 저울처럼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정치의 시급한 과제로 '나라의 법률이 존중받아 지켜지고' '백성의 생활이 소중하게 보호될 것'을 강조하였다.

정치 무대 위에서는 제각기 자기가 옳다는 주장으로 시끄러운데 법은 힘없는 백성만 지키고 있으며, 거리에는 직장도 없이 헤매는 청년들이 넘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든 병을 찾아내어 치료하지는 않고 원론적인 건강법만 떠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현실의 시급한 문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기만 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그래도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명의가 드물듯이, 현실의 폐단과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가보다. '시기적 적합성'과 '현실적 효용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개혁의 대책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한 안목과 역량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의 시급한 일과 근본적인 중대한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마치 나무에 꽃이 아름답게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가지 끝이 우리의 시선을 강력하게 끌고 있지만, 그 가지 끝의 꽃이나 열매가 병들지 않고 충실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나무뿌리가 건강해야만 가능하다. 한 사람에서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근원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시급한 현실문제 해결에 몰두하다가 근본의 문제를 놓쳐버리면, 마치 조선왕조에서 근본의 도덕에 몰입하다가 시급한 현실을 외면하였던 병통과 같은 과오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스는 줄은 모른다"고 하였으니 작은 일, 급한 일, 먼저 할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큰일, 중요한 일, 나중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글 · 금장태(서울대 명예교수)